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realty.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본지 선정 올해 한인뉴스는 기록적 폭설

한인들 최대 관심사는 보스톤 한인회와 한인사회 경제 한인회장의 취임과 한국의 날 제정 모두 주요 뉴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5년 한해를 돌아보며 선정하는 한인사회 10대 뉴스에서 대부분의 관심사가 한인회와 한인사회 경제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총 14건의 주요 뉴스를 놓고 편집진과 칼럼니스트들의 투표를 받았다. 연령과 직업군에 따라 칼럼니스트들의 의견은 상당한

편차로 같았으나 공통적으로 표를 많이 받은 것은 한인회 관련 뉴스와 한인들의 경제에 관한 뉴스였다. 보스톤코리아 편집진과 칼럼니스트 13명이 선정한 올해의 뉴스는 올해 초 보스톤에 쏟아진 역사상 최대 폭설이었다. 1월 말에서 3월 까지 내린 이번 폭설은 보스톤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던 터줏대감들도 이주를 생각해 할 정도였다. 플로리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스톤 한인들이 상당히 문의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폭설로 인해 한인은 물론 수많은 매사추세츠 상권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연방 정부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기록적인 폭설을 1위로 선정한 윤희경 칼럼니스트는 "과상적인 폭설로 인하여, 서민의 전반적인 일상 생활에 늦 봄까지 많은 지장을 주었다. 자연 재난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준 좋은 예" 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폭설 뉴스는 무려 5명으로부터 1위표를 받았다.

지난 5월 김경원 한인회장의 취임과 이와 관련 한인회의 각종 문제점은 2위에 선정됐다. 흥미로운점은 12명의 선정위원 중에서 이 뉴스에 1위표를 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의 칼럼니스트들이 2,3위표를 던진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장해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웠다. 취임식은 회장 인준이 결정되기도 전에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 지인들께 통보하는 행동 우선주의는 한인사회에 좋은 충격이었다.

지난 11월 '보스톤 한국의 날' 지정은 김 >>2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25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휴간을 맞아 25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

독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올해로 10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보스톤코리아를 사랑해주시고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스톤 지역 언론으로서 늘 정론직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바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의 동행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보스톤코리아를 찾아주시고 기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고 목소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스톤 코리아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보스톤 한인사회 10대 뉴스

1. 2015년 기록적인 폭설 비즈니스 한숨, 보스톤 이탈 현상도
2. 한인회장 후보 없어 임시회장 체제 4개월 김경원회장 취임
3. 보스톤 한국의 날 제정
4. 한인 유학생 감소, 올스톤 한인 학생들 대부분 사라져
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0주년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1천여명 방문
6. 보스톤 올림픽 개최지 선정 후 포기
7. 백린 전 노인회장 별세
8. 오바마케어 한인 가입자 극소수
9. 은혜 식품 및 미림식품 등 한인식품점 잇따라 폐점
10. 보스톤 최고 한식당 서울 설렁탕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law.com



TBO PLAY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품질로 즐기세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4.99**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617.955.9112
617.254.4654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won@bostonpremierrealty.com jason@bostonpremierrealty.com

2015년, 보스턴 지역 한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은 뉴스는?

▶▶1면에 이어서

경원 한인회장 취임 후 달라진 한인 회를 반영한 단면이 됐다. 올해 한인 회의 최대 업적이기도 하다. 김경원 한인회장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 김현주 민주평통 부간사를 선택해 일을 맡긴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결국 한인회 임원만이 한인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김현주 씨를 뒷받침해줄 티토 잭슨 시의원을 연결한 것도 한인회장의 좋은 포석이었다.

보스턴 한국의 날 지정을 1위로 선정한 정한웅 보스톤코리아 디자인 팀장은 “보스턴 한인사회는 모래알처럼 개인주의적인 줄 알았는데 김경원 회장 당선 이후 이런 것도 한다는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인사회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는 한인 유학생의 감소였다. 유학생의 감소는 유학생 관련 업종은 물론 한인사회 자영업 종사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와 오픈도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 이상의 재학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기유학생의 추세는 완연히 꺾였다. 한인사회의 식품점

및 각종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유학생 감소다.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조기유학은 여전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세 교육을 책임지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0주년도 많은 관심을 모아 5위에 꼽혔다. 특히 40주년 기념으로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한국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무려 1천여명의 한인들과 미국인들이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극히 인상적이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축을 이뤄 만들어내도록 하는 남일 교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뉴햄프셔 한인회장이자 본지 칼럼니스트 박선우 씨는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1천여명의 관객/고객이 참석했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관심 고조와 우리의 정체성 확인으로 결국 우리 조국의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6위에는 보스턴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포기가 꼽혔다. 민간 주도의 올림픽 준비위가 봉사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부터 올림픽 개최의 꿈은 조각나기 시작했다. 올림픽은 한순간이

지만 남겨진 빛은 영원하다는 논리가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민들 뇌리에 자리잡으면서 주민들의 지지는 사그러들었다.

한인사회의 지도자였던 고 백린 전 노인회장의 별세 소식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이 뉴스를 1위로 선정한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백린 선생님은 규장각 도서 2만권을 지켜낸 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보스턴 한미 노인회장, 보스턴 한미노인대학장, 이민 1백주년사 편찬인, 그리고 보스톤코리아 역사칼럼니스트로서 활약했던 한인사회에 대들보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8위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극소수라는 뉴스가 차지했으며 9위는 뉴잉글랜드 1로 식품점이었던 미립 식품을 비롯한 한인 식품전의 잇따른 폐점이 꼽혔다. 10위는 보스톤코리아가 10주년을 기념으로 한식 관심 고조를 위해 실시했던 한식당 선정에서 서울설령탕이 1위로 뽑힌 뉴스가 선정됐다.

신 영 칼럼니스트는 “보스톤코리아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이벤트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에게 그리고 한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였으며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재미있고 참신한 이벤트에 큰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를 얻은 서울설령탕을 경영하시는 사장님께도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인치의 눈이 내려 1995-1996년의 107.9인치였던 역대 최고 적설량을 넘어섰다. 베이커 주지사는 연방비상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위 보스톤 한인회장 이취임식
한인회장 후보없이 임시회장체제 4개월 김경원회장 취임

5월 2일 김경원 한인회장이 보스톤 한인회장으로 취임했다. 간단한 사실이지만 그 배경은 쉽지 않았다. 과거 회장들이 세금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비영리 단체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아무도 한인회장 직인수를 꺼려했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난 한선우 회장이 4월까지 임기를 연장해 맡아야만 했다. 그러던 차 김경원회장이 나섰다. USTC 태권도 센터 관장인 김경원 회장은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행동으로 처리했다. 한인회 이사회는 출범하는 김회장을 위해 그간의 문제를 덮어버리기로 하는 강수를 두었다. 결과론적으로는 깔끔한 선택을 한 셈이다.

▶▶3면으로 계속



1위

2015년 기록적인 폭설 비즈니스 한숨, 보스톤 이탈 현상도

올해 2월 20일자 보스톤코리아 헤드라인은 “모이면 다들 힘들다는 얘기뿐”이었다. 한인 비즈니스는 물론 매사추세츠 비즈니스는 울상이었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기록에는 못미치는 3위 정도의 적설양이었다. 역대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벌인 사진 공모전도 벌였다. 심지어 오바마케어 마감일도 연장했다. 2월 25일 들어 역대 적설량 2위로 올라섰다. 3월 15일 시즌 총 108.9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3위



보스턴 한국의 날 제정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시 한국의 날(Korea Day)로 제정됐다. 김경원 보스턴 한인회장의 올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남게 됐다. 보스턴 시정부는 보스턴 한인회(회장 김경원)의 한국의 날 제정 신청을 받아들여 매년 10월 3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보스턴시는 또 10월 20일 시청 광장에서 한국 국기게양식을 가졌다. 이 한국의 날을 제정하는 데는 김현주씨의 노력이 컸으며 티토 잭슨 보스턴 시의원의 지원도 큰 작용을 했다.

한인 유학생 감소, 올스톤 한인 학생들 대부분 사라져

한국 유학생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비스(SEVIS, 유학생 온라인감시 시스템)가 3월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학생(F-1), 직업연수(M-1)비자로 미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87,384명으로 1.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8% 감소에 이어 1.2%가 또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약간 줄어든 상태다.

특히 조기유학생 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조기유학 담당 유학원들은 계속 감소세라고 진단했다. 올스톤 한인타운에도 학생들이 줄었다. 흥미로운 점은 어학연수 이상의 학생들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교육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 국무부와 공동으로 매년 작성하는 오픈도어(opendoors) 자료에 의하면 매사추세츠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은 지난 2014년 현재 3,074명으로 2012년 2,764명, 2013년에는 3,068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0주년 역사 박물관 개관식에 1천여명 방문

보스턴에서 단일 기관 주최행사로는 좀처럼 기록하기 어려운 1천여명이 모였다. 개교 40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학부모회장 이현주)가 올해 2월 21일 개최한 '역사박물관 개관 및 문화체험관 행사'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외부 참가자 1천여명이 참가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한인사회내 관계자 그리고 미국인들의 참여가 이끌어낸 숫자다. 2세대들과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자부심을 갖는 행사로 좋은 기획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40주년이란 의미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6위



보스턴 올림픽 개최지 선정 후 포기
보스턴시 올림픽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보스턴의 올림픽 개최의사를 공식 포기했다.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형 올림픽의 가장 큰 힘은 보스턴 주민들의 지지였다. 올림픽 준비위원회는 그러나 관련 임원들에게 대한 과도한 연봉지급 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특히 드벌 패트릭 전주지사가 홍보대사로 시간당 6,000여불을 받는다는 사실이 부정 여론에 불을 댕겼다. 잠깐의 기쁨 후 과도한 세금부담이란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 충분한 자금확보에 실패한 준비위원회에 남은 것은 포기밖에 없었다.

7위



백린 전 노인회장 별세
한인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백린 전 노인회장이 향년 91세로 10월 별세했다. 한국전쟁 때 규장각의 조선왕조실록 2만여권을 가지고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지켜냈고 규장각 도서 16만권을 현대식 목록법으로 정리했다. 하버드 엔칭 도서관은 백린 선생을 스카우트해 한국 고서 관리를 맡길 정도였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을 맡아 어려운 살림을 꾸려 지금의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의 한국 학교의 밑거름역할은 물론 노인회, 노인대학, 이민백주년기념사업 등에 족적을 남겼다. 보스턴코리아칼럼니스트로 외병 이전까지 활발한 칼럼 활동을 했다.

4위



5위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대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Day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3면에 이어서

8위



오바마케어 한인 가입자 극소수

2015년도 오바마케어 신청자가 마감된 지난 2월 15일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 한인은 총 1,486명에 불과했다. 보스톤코리아가 11월 재확인 결과 2,182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한인 인구수에 비해 10%가 채 못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에 미가입시 벌금이 가족구성원당 연 \$625로 늘어 벌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직장보험, 학생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위



은혜 식품 및 미림식품 등 한인식품점 잇따라 폐점

5월 20일 은혜식품점이 문을 닫았고, 이번달 28일 미림식품점이 문을 닫는다. 소규모 한인식품점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만큼 대형식품점 H마트의 수요 증가와 한국식품점의 불편하다. 중국식품점은 물론 웬만한 미국슈퍼들도 한국식품을 취급하며 한인 소비자들을 잡고 있다. 소규모 한인식품점들의 폐점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입는 것도 소비자이다. 이제 쉽게 들 수 있는 이웃같은 슈퍼는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10위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결과 순위

1위 서울설령탕(울스톤) 112표

보스톤 최고 한식당 서울 설령탕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최고의 한식당 독자 투표 선정에서 울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독자투표는 우편 투표 및 이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486명이 참가해 112표를 받은 서울설령탕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메드포

드 청기와, 3위는 서버빌 북경반점, 4위는 울스톤 거주순두부, 5위는 별링톤 뉴장수 갈비가 각각 차지했다.

11위



중국상권에 한국상권 잠식 우려

한인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푸레쥬르는 물론 울스톤의 PC카페, 미림식품, 뉴튼센터의 사뵤로 등은 모두 한인 구입자들을 찾지 못하고 중국인들의 손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상품을 선호하고 장래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인상권이 넘어가는 현상이 그리 썩 달갑지만은 않다.

울스톤 하버드 애비뉴에 점차 중국 식당들이 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한인상권이 위축된다면 머지않아 한인타운이란 비공식 명칭도 내줘야 할 수 있다.

12위



이북 5도민회 2명 회장 갈등

난감하게도 2015년 보스톤엔 2명의 이북도민회장이 등장했다. 한쪽은 2014년도부터 회장직을 2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동수 회장, 다른 한쪽은 부회장이자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유순나 회장이다. 이북도민회의 핵심 사업인 고국방문단 신청도 양측 각기 따로 접수했다. 갑작스런 두 회장 체제에 행사 부산하 이북5도위원회는 올해 고국방문단 선정을 보류했다. 분명 어느 한쪽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스톤 한인사회에게 돌아왔다.

13위



한인회 연말파티 사상 최대 인파
12월 12일 개최된 보스톤 한인의 밤 행사에는 약 500여명의 인파가 몰려 한인회 연말파티 사상 최대의 인원을 기록했다. 이번 보스톤의 밤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인재들로 구성된 연주자들의 연주와 디너가 어울어지는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의 대부분은 태권도장 중심의 인원들로 한인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다수 참여했다.

14위



김제동과 주진우 하버드 강연 (4월 3일자)

3월 28일, 방송인 김제동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하버드를 다시 찾아 강연했다. 강연에 4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들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강연이 시작하기 한 시간 전부터 모여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썼으며 350석의 강연장이 금새 꽉 찼다. 늦게 온 사람들은 의자 사이 계단에 걸터앉기도 했다. 한인 학생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일부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한 이북 도민회 이동수 회장

이동수 회장 2년 임기 밝힌 전좌근 전회장 이메일 증거 밝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이북도민연합회 이동수 회장이 고별 인터뷰에서 “연합회를 잘 이끌지 못해서 죄송하다” 는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동수 회장은 “아무리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진다 할 지라도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가고 싶다” 고 말했다.

12월 3일 브루클라인 야수 식당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회장은 지난 3월 보스톤코리아의 이북 5도민연합회 회장 2명이 난립해 있다는 보도 이후 마음고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명서까지 준비해 ‘억울함’ 을 호소했다.

이병헌 이사장과 강천선 사무총장 등 관계자의 증언은 이동수 회장이 ‘진짜 회장’ 이라는 것이다. 이동수 회장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는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전좌근 직전 회장이 2014년 1월 13일 본국 이북5도위원회 강미희 주무관에게 보낸 이메일은 이동수 회장이 2014, 2015년 2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육동석 전 사무총장이 기록한 2013년 4월 압구정 식당에서의 이사

회에 따르면 2007년의 회칙을 수정해 회장,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부회장의 명칭을 차기 회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기록은 정확한 이메일 자료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강천성 사무총장이 사실임을 인정했고 전좌근 전 회장의 이메일과도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3월 24일 보스톤코리아를 방문한 유순나 ‘회장’ 은 “(회칙을 변경하는) 회의를 안했다” 고 딱 잘랐다.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안 했으니까” 라고 다시 답했다. 같이 방문한 김혜련 사무총장도 “이동수 씨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가 회장이라고 편지를 써 보냈다” 고 첨언했다.

이동수 회장은 “임기를 2년으로 수정했던 이사회에서 부회장 명칭을 차기회장으로 함께 수정했다” 고 말하고 “자신이 차기회장으로 지명됐으니 2015년부터 회장이라는 사람이 둘이며 고국방문단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유순나씨는 남편인 유한선 전 한인 회장, 강경선 고문, 김혜련 씨 등과 함께 보스톤코리아를 찾아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보스톤지역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북도민연합회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쳤다. 솔로몬의



이메일 증거 자료(왼쪽)와 12월 3일 브루클라인 야수 식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이동수 회장(오른쪽)



차기회장으로 지명되었으므로 2015년부터는 회장직을 인수 받았으며 회장을 자처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결국 3월 한인사회는 난감한 뉴스를 접해야만 했다. 그동안 수차례 이북도민연합회에 대한 항의 제보를 취재한 본보가 3월 20일자에 회장이 라는 사람이 둘이며 고국방문단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유순나씨는 남편인 유한선 전 한인 회장, 강경선 고문, 김혜련 씨 등과 함께 보스톤코리아를 찾아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보스톤지역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북도민연합회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쳤다. 솔로몬의

재판은 커녕 한 측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태도로 인해 사실규명이 아닌 진흙탕 싸움이 부각되어 버렸다.

지난 7월 이북도민연합회는 차기 회장으로 김명희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이를 인준했다. 이동수회장은 김명희씨로 바톤을 넘기기 전 시끄럽더라도 사실은 해결해야 한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희 차기 회장은 본국에서는 “아직도 고국방문단 사업을 승인치 않겠다” 고 밝혔던데서 그래도 계속 이북도민 연합회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새생활센터 무료 진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스톤햄 소재 새생활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건강 상담 행사를 실시한다.

진료 서비스는 매사추세츠 주민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제공되며 무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이 포함된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제공한다. 환자들의 진찰은 도착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면 보다 정확한 혈액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보스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 (317-374-4786 혹은 781-279-3270)에게 하면 된다.

무료진료 안내

일시: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Boston Korean SDA Church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한인회 파티 사상 최대인원 500여명 참석 성황

보스톤 한인의 밤 행사 성공적으로 마쳐
태권도 도장 중심으로 대거 참여 미국인들도 다수
보스톤 지역 공연가들 중심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회가 김경원 한인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연말 파티 '보스톤의 밤' 행사에 500여명의 참여를 유도 한인회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이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2일 프렐링햄 소재 웨라톤 호텔 그랜드 룸에서 열린 보스톤의 밤 행사는 매사추세츠 주내 태권도 도장을 중심으로 한인 및 미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에 힘입어 성공을 거뒀다. 매사추세츠 태권도계의 대부 격인 김경원 회장의 탄탄한 인맥과 조직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과거 한인사회 연말 파티 등 행사에 관한 경험이 많았던 한 관계자는 "어떻게 500여명이 모이는 한인회 파티가 가능했느냐?" 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이번 보스톤의 밤 행사는 보스톤 중심의 한인 공연자들이 대거 참여해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억의 개그맨 엄용수를 3부 사회자로 내세워 파티의 매력도를 높였다. 한인회 문화부장 남병진 씨의 적극적인 행사 관측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티토 잭슨 보스톤 시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스톤 한국의 날 지정 행사 때 80여명의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것을 이야기하며 얼마나 많아야 많은 것인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전명호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경원 한인회장, 박인구 동북부 연합 한인

회장, 엄성준 총영사, 티토 잭슨 보스톤 시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인회는 올해의 한인상으로 노영심 노인회 회장을 선정했다. 노회장이 모친상으로 불참해 한인상은 권정자 부회장이 수상했다. 또 김현주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부간사에게 한국의 날 지정 공로상을, 미주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진원 탁구협회 회장에게 올해의 체육인상을 수여했다. 이외에 국제선 보스톤협회, 시민협회, 화음챔버 오케스트라, 보스톤한미문화재단, 보스톤 한인축구리그 등에 단체 공로상을 수여했다.

2부 저녁시간 및 공연 순서에서는 화음챔버 관현악 4중주(박진욱, 김현정, 고은아, 문태극)를 시작으로, 한여정씨의 설장구, 원숙경 씨의 가요무대, 정종은 씨의 오페라, 버클리 재학중인 송민주씨의 팝 공연, 소프라노 김연서씨, 김도연 씨 외 4인의 국악 및 클래식의 만남 연주, 박천우 씨의 가요 연주가 이어졌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한인회 파티는 처음" 이라는 한 한인회는 "여전히 다수의 한인들은 한인회 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인회의 남은 과제다. 소극적인 한인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한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가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프렐링햄 웨라톤 호텔에서 12일 열린 보스톤의 밤에 5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해 사상 최대 인원 동원을 기록했다



한인회가 공로상을 수상한 한인단체들



올해의 한인상은 유영심 노인회장에게 돌아갔다. 사진은 대리수상한 권정자씨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김경원 한인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엄성준 총영사(세번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파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Hanbok을 입은 미국남성은 이름을 로저라고만 밝혔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총영사관 주최 제3회 창조경제 포럼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12월 14일 월요일 "창조경제와 한인비즈니스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3회 창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뉴햄프셔 및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단, 민주평통 보스톤지회 임원단,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보스톤지회 임원단, 재미 한인과학기술인 협회 회장, 뉴잉글랜드 생명과학 협회 회장, 재미 한인제약인 협회 회장, 한인바이오 산업 협회 회장, 재미 한인교수 협회장을 포함한 한인기업인, 과학기술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창조경제와 한인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과 "창조경제와 기술창업"이라는 2개 세션으로 나눈 이번 포럼은 모



14일 열린 창조경제 포럼에서 엄성준 총영사가 창조경제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더레이터의 사회로 세션별 3명씩 패널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또 로버트 넬슨(Robert Nelson) 미연방 중소기업청 보스톤지역국장이 참석하여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엄성준 총영사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의 시사점, 보스톤 비즈니스 현황과 창조경제 연계 가능성, 보스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염재호 총장이 방문해 고려대의 비전을 설명한 2015년 고려대 교우회 송년회

총장 방문한 고려대 송년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 생물 87)는 지난 12월 10일 목요일 여용동(경영, 82)/설명진(통계, 83) 교우 자택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각 지역에서 60여 명의 고대 교우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는 염재호 총장이 방문해 고려대의 비전을 설명했다. 해외대학들과의 협력강화 미팅을 겸한 해외 교우회 지부 순회 방문길로 시애틀, LA,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토론토를 거쳐 보스톤을 방문한 염 총장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고대가 현재 104위로 선정되어 국내사립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현 고려대 발전 상황 등을 설명했다.

한문수(경제, 83) 교우회 대외 협력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태호 교우회장의 환영사, 고대 염 총장의 답사, 유병현 대외협력처장, 김선혁 국제처장의 답사, <고대 홍보영화> 상영, 교우회 기념품 증정, 교가 및 교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태호 교우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 보스톤을 방문한 염 총장 일행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하며 젊음의 역동성을 많이 가진 교우회를 소개했다.

염 총장은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를 표어로 시험감독, 출석확인, 상대평가를 없애는 3무 정책, 유연 학기제 도입, Need-based 장학금 시행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어갈 KU-MAGIC(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을 지난 9월 안암과 정릉 캠퍼스에 출범하여 바이러스 및 감염병, 미래형 의료기기, 맞춤형 의료, 빅 데이터, 스마트에이징 분야 등을 포함하는 첨단의료과학 센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식사를 나누고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본교에서 보내온 고대 신년 달력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 모임은 2016년 6월 고대 교우회 고문인 한선우(원예, 78) 교우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고대 교우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이태호 (617-780-2999, tlee0813@hotmail.com), 전인탁 (857-998-3318, ingome22@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제주도, 제주 특산물 판촉행사 개최

제주 상품 해외 수출시장 확대 기여
삼다수 무료 증정, 오메기 떡과 감귤 시식행사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 벌링턴 점은 제주도, 제주 수협과 공동으로 제주 상품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판촉행사를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18일 벌링턴 점은 물론 휴스턴 2개 점 뉴욕 3개점에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11시 H마트 베이사이드점에서 참가단, 현지 바이어, 뉴욕 재미제주도민회가 참석하는 기념 행사로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 소재 18개

사의 활판어, 냉동 수산물, 농산가공 식품 등 71여 개 제주산 상품들을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제주여성의 상징인 해녀 복장을 입은 행사 도우미가 방문객들에게 제주 삼다수를 무료 증정하고, 제주도의 전통 떡인 오메기떡과 제주 감귤 등의 시식을 통해 청정 제주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H마트에 따르면 각 지역 농수산물 판촉행사는 2011년부터 시작돼 지역상품 업체들의 상품별 수출관로 개척 및 진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



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집중된 농수산물 수출을 미주시장으로 확대해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8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해밀턴〉 꼭 봐야 하는 뮤지컬로 꼽힌 이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알렉산더 해밀턴, 우리는 흔히 미국 건국당시 재무장관이었고 지금 10불 지폐의 얼굴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해밀턴이 2015년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뜨거운 뮤지컬로 회자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가족은 물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유명인들이 〈꼭 봐야 하는 뮤지컬〉로 꼽고 있다. 해밀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BS의 〈60분〉 등 수많은 유수의 언론에서조차 여러 차례 이 뮤지컬을 다뤘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자.



린 매뉴얼 미란다가 2012년 자신이 자란 어퍼 맨 하튼에서

해밀턴은 소위 대박난 뮤지컬이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다룬 뮤지컬은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다.

평론가 벤 브랜틀리는 그의 평론에서 “정말 최고로 좋다”고 표현할 정도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1년 〈물문의 책〉 이후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뮤지컬이라 평했다.

〈해밀턴〉은 정말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뮤지컬이다. 젊은 작곡가이자 극작가가 만든 이 훌륭한 뮤지컬은 브로드웨이 40개 극장을 넘어서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뮤지컬은 흥미롭게도 힙합과 R&B의 리듬과 랩으로 뮤지컬을 진행한다. 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전통과는 아주 먼 음악 형태다. 랩과 알앤비를 통한 이 뮤지컬은 완전히 미국 뮤지컬의 형태를 재형성시켰다. 2015년 드라마 데스크어워드의 아웃스탠딩 뮤지컬로 선정됐으며 14개 분야 중 7개 분야에 지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명 연예인의 참여도 없는 이 뮤지컬이 왜 브

로드웨이에서 꼭 봐야 하는 뮤지컬이 됐는지 그 뒷 이야기가 자못 궁금해진다. 더구나 깜짝 놀랄만한 특수효과도 없고 백인 배우도 없다. 여기서 왜 이 뮤지컬의 대세인지 5섯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자.

〈해밀턴〉이 탄생한 배경 (A Brief 'Hamilton' History)

해밀턴을 탄생시킨 작곡가이자 극작가는 린-매뉴얼 미란다(Lin-Manuel Miranda)이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족출신의 미란다는 고교시절 신문에 1804년 해밀턴과 애론 버 부통령간의 대결이 마치 랩의 라이벌 대결을 연상시킨다는 글을 쓰면서 해밀턴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2년 인터뷰에서 미란다는 “투팩의 힙합 이야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미란다는 해밀턴이 1996년 총격에 사망한 래퍼 투팩(Tupac)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투팩 사커(Tupac Shakur)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랩을 써왔다. 미란다는 특히 투팩의 “브렌다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노래를 칭찬했다. 이 노래는 12살 짜리 소녀가 강간범에 의해 아이를 낳은 이후 창녀가 된 사연을 담고 있다.

투팩은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 자신이 싫어하는 래퍼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공분을 샀다. 뉴욕 포스트의 창시자일 정도로 글을 잘 썼던 해밀턴과 투팩은 유사했고 얼마나 해야 적절한지를 몰랐던 성격도 같다고 보았다. 결국 이 같은 특징이 해밀턴을 성공

된 계기는 2004년 멕시코 여름 휴가 때 공항에서 론 처노우(Ron Chernow)의 알렉산더 해밀턴 전기를 구입해 읽은 후다. 이후 그는 해밀턴에 대한 작업을 몇 년간 진행했다. 그는 2009년 백악관에서 열린 시와 음악의 밤에서 장래 뮤지컬 〈해밀턴〉에 들어갈 몇가지 노래를 불러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3년 후인 2012년 링컨센터 연례 송극 시리즈에서 해밀턴 뮤지컬의 원형인 “더 해



뮤지컬 〈인더하이츠〉의 한 장면

으로 이끌었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점이다.

미란다가 해밀턴을 뮤지컬로 쓰게

밀턴 믹스테이프”의 발췌본이 발표됐다

▶▶9면으로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왜 <해밀턴>은 그리 화제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각계 권위자가 관람한 뮤지컬

▶▶8면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갖춘 뮤지컬 <해밀턴>이 2015년 2월 브로드웨이 극장이 아닌 <더 퍼블릭 시어터>에서 막이 올랐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다양성 (Diversity)

<뮤지컬> 해밀턴은 대부분 흑인 또는 라틴계열이 배역을 맡았다. 이는 많은 유색인종 배우들에게는 브로드웨이의 별명인 <그레이트 화이트웨이>로 인식되던 개념에 정면 도전이었다.

미란다(35)는 “우리들의 배역은 현재의 미국의 구성과 같다. 어찌보면 국제적이다” 라고 올해 초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관객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에 대해 가진 문화적 배경을 극장 입구에 내려 놓고 오로지 뮤지컬 이야기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의 어퍼이스트사이드 소재의 엘리트 공립학교를 졸업한 미란다가 비 백인 배역으로 구성된 뮤지컬을 브로드웨이에 올린 것은 <해밀턴>이 처음이 아니다. 라틴계 가족이 워싱턴 하이츠에서 사는 이야기를 다룬 <인더 하이츠>에서 라틴계 배우들과 힙합 느낌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연방은행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어렸을 때 극빈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가 3살 때 그를 떠났고 어머니는 그를 고아원에 집어 넣었다. 해밀턴은 뉴욕 시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유창한 달변이며 글을 잘 썼던 그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3분의 2를 자신이 직접 쓸 정도였다. 미국 남북전쟁 때 워싱턴 장군의 보좌관으로 복무했으며 전쟁이 끝나고 초대 재무장관이 됐다. 그는 흔히 정사로 미국내 최초의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이란 오명도 받았다. 그는 50이 되기전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와 말다툼 끝에 총격 대결로 사망했다.

의 노래 안무를 사용했다. 2008년 미란다는 이것으로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을 수상했다.

대박난 티켓 판매

해밀턴이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것은 2015년 8월 Richard Rodgers Theatre 였다. 이 쇼가 시작하기 전 7월부터 무려 20만장의 티켓이 미리 팔려 나갔으며 무려 3천만불의 소득을 올렸다. 첫 3개월 동안 무려 5천7백만불의 사



전 예매 수입을 올렸다. 이 같은 사전 티켓 판매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해밀턴은 계속 브로드웨이 박스오피스의 강력주자로 남아 있으면서 지난 9월 레이버 데이 현재 “라이언 킹”을 따져 추격하고 있는 2위 뮤지컬이었다. 올해 말까지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쇼로 떠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로저스 시어터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영예들인 샤샤와 말리아가 방문해 쇼를 관람했다. 이 극장사상 가장 유명인사로 남게 됐다.

브로드웨이에 입성하기 전 퍼블릭 시어터에서의 쇼도 엄청난 대성공이었다. 무려 119회의 공연이 모두 매진될 정도였다. 음악계에서는 마돈나, 디체니 부통령, 유명 저자인 게이 텔리스, 할리우드 배우 제이크 질렌할 등이 뮤지컬을 보기위해 몰려들었다. 보수인 사들도 이 쇼에 매료됐다. 루퍼트 머독조차 “대단한 쇼” 라고 평했다.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 재현

역사적 정확성은 미란다에게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는 18세기 정치뿐만 아니라 뮤지컬 극장의 역사에 까지 관심이 많았다.

해밀턴 전기의 작가 론 처노우는 뮤

지컬 <해밀턴>이 아주 설득력있으며 타이틀 인물에 대한 아주 내부적인 시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란다는 이 뮤지컬을 만들면서 론 처노우씨로부터 계속 조언을 받았다.

처노우 씨는 한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미란다는 해밀턴이라는 인물의 극적인 핵심만을 잘 뽑아 냈다. 해밀턴의 과도한 야망, 자신의 업적에 대한 집착, 본성, 호색한의 눈, 뛰어난 정신, 잘못된 판단 등이 그것이다.

뮤지컬 언어

브로드웨이와 힙합은 서로 어울리



토마스 키일(사진 좌측) 감독과 주연이자 각본 및 노래작곡자인 린 매뉴얼 미란다가 리하설에서의 논하는 모습

기 힘든 상대였다. 특히 사랑한 래퍼 투팩을 모델로 한 뮤지컬 “홀러 이프 야 히어 미” 같은 경우 결국 힙합과 뮤지컬과의 다리를 놓는데 실패했다.

<해밀턴>은 완벽한 랩과 스토리텔링의 결합으로 브로드웨이의 전통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힙합의 열성팬들도 이 뮤지컬을 인정하고 있다. 퀘스트러브로 알려진 아이르 탐슨은 최근 “뮤지컬을 보면서 나는 린 매뉴얼이 힙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히 힙합을 소화했다” 고 평가했다.

뮤지컬 가사의 대가인 스티븐 손다임 또한 미란다의 뮤지컬을 인정하고 있다. 미란다는 웨슬리언 대학의 뮤지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스티븐 손다임은 “청취자들의 인식에 큰 역할을 하는 라임이 정말 훌륭하다. 린 매뉴얼이 이를 알고 있기에 이 뮤지컬은 더욱 더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뮤지컬 해밀턴은 브로드웨이 리처드 로저스 시어터에서 상영 중이며 뮤지컬 러닝타임은 2시간 30분 일반적으로 12세 이상이 관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오바마의 딸이 <해밀턴>을 관람키 위해 방문한 리처드 로저스 시어터를 밖에서 경호하고 있는 요원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손목, 팔꿈치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비정상적인 심박, 기침
- ⑦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
- ⑧ 기타 재활치료로 치료하기 어려운 기능성 장애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BTA 그린라인 연장 공사 기존 계약 취소

일부 회사들 계약 과정에서 부당 이익
전체 비용 줄이기 위해 유연한 계약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가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린라인 확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을 취소하였다. MBTA는 17일부터 그린라인 확장 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자 선정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MBTA는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그린라인 확장 공사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MBTA 이사회에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MBTA는 기존 계약들을 취소시켰다.

그린라인 확장 공사는 정부의 예산보다 10억 달러 이상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머빌과 메드포드를 연결하는 철로 연장 공사에 많은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달 말에는 컨설팅 업체에서 MBTA의 경영진이 적합한 방법으로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사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MBTA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MBTA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당분간 새로운 공사는 계획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계약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린라인 확장 공사의 3대 계약 회사 중 한 곳인 화이트 스칸스카 키워트는 성명에서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이사회에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MBTA와 매사추세츠 정부와 협력하여 이미 진행 중인 공사를 마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MBTA는 확장 공사 전체 비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사 도중에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공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선택 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 기간과 비용을 조절할 계획이다.

스테파니 폴락 교통부 장관은 그린라인 확장 공사에 대한 결정은 몇 주 후가 아닌 몇 달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그린라인 확장 공사 계획은 몇 달 뒤에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촬영할 수 있다

MA주 교통부 드론 도입 검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교통부가 드론(무선으로 조종 가능한 무인 항공기)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부는 교각 아래쪽이나 공항 상부, 터널 내부 등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조사할 때 드론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드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드론의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도 참여하고 있는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연방 드론 연구소의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교통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드론이 사용될 수 있는 잠재

적인 기회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드론을 이용하면 교통부 산하 공항들에 대한 수시 점검이 가능하고, 비행기 사고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고속도로 교각이나 터널을 점검할 때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 (드론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연방 정부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최신 드론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연말사는
대축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행사기간 : 12.27 까지

홍삼정 최대 혜택 홍삼정으로 입연증 가장 큰사

추제 1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Free Gift

+

\$46 상당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홍삼정 120g 증정

Free Gift

+

\$100 상당

추제 2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홍삼정 120g 증정

Free Gift

+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주문 **781-238-03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드샷 튜터링

Nabis Studio

보스톤 BYOB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가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술반입허용법(BYOB)"은 맥주와 와인을 식당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비록 술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그의 다양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 의회가 통과시킨 세부 지침을 두고 의회는 최종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BYOB는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시의회 지침에 따르면 BYOB는 하이드파크, 락스베리, 사우스 보스톤 그리고 도체스터 등지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운타운, 노스엔드, 사우스엔드, 베이 빌리지, 펜웨이, 차이나타운, 시포트, 웨스트엔드, 비컨힐, 벡베이 등지에서는 여전히 술반입이 금지된다.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들은 보스톤 시로부터 BYOB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연간 \$30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는 식당 내부에 잘 보이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이미 기존의 리커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들의 경우 BYOB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30석 이상의 식당에서는 이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없다. 식당에서 웨이트 스태프가 음식을 서브해야 하며 리커 라이어빌리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당의 매니저와 스태프는 보험 회사의 음주 서빙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맥주, 와인 등 특정 종류의 술만 허용된다.

BYOB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에는 단지 몰트주류와 와인만 허용된다. 2명 고객에게 최대 허용기준의 와인은 750밀리리터로 일반적인 와인 1병이다. 몰트 주류 최대 허용치는 72온스로 맥주 6병을 뜻한다.

BYOB 고객은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제안된 법령에 따르면 식당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병당 '코키지(corkage)'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시 법률은 마틴 월시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 후 시 라이선싱 보드로 이송돼서 최종 시행령을

결정하게 된다. 라이선싱 보드의 회장은 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BYOB 정책에 대부분 지지의 사.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미셸 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목표는 새로운 식당들이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도시의 경우 리커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는 식당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지난주 공청회에서 아무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었다. 물론 어이어나 프레슬리 시의원은 이중적인 라이선스 구조와 종업원들에게 적은 팁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시의회는 16일 만장일치로 술병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BYOB)을 금지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술 직접 가져가는 BYOB 시의회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16일 만장일치로 술병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BYOB)의 금지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스톤 마틴 월시 시장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 법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우보스톤시의원

보스톤 시의회 표결로 인해 보스톤 시민들은 앞으로 보스톤 시내 BYOB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에 맥주 또는 와인을 들고 가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YOB는 Bringing Your Own Bottle의 준말이다.

이법안의 실질적인 발의자인 미셸 우 의원은 "BYOB의 제한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 BYOB가 보스톤의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경제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월시 시장은 "일부 지역의 소규모 식당들에게 경제적인 활성화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BYOB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다수 표결과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보스톤 라이선싱 보드로 이송되며 구체적인 법안 시행령을 완성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BYOB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30석 이하 좌석의 식당이어야 하고 보스톤 외곽지역인 도체스터, 하이드파크, 락스베리, 사우스 보스톤 등의 지역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스엔드, 사우스엔드, 펜웨이, 차이나타운, 시포트, 웨스트엔드, 비컨힐, 벡베이 등의 지역은 BYOB가 여전히 금지된다.

BYOB는 맥주와 와인에만 한정되며 수량도 와인 한병 또는 맥주 6병으로 제한된다. BYOB 라이선스 보유 식당은 술을 팔 수 없다 다만 술을 가져오는 손님들에게 일정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미셸 우 시의원과의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스티븐 머피 시의원이 공동 발의 한 BYOB는 지난해에 제안했으나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스티븐 머피 의원이 자신의 마지막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과격함으로써 동력을 얻게 됐다.

보스톤시 사업체개발청 라파엘 카보넬 부청장에 따르면 시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식당업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5 YEARS ARLINGTON MR.SUSHI

순두부, 일본 사골 라멘
Spicy Soft tofu, Japanese Ramen

열큰 순두부, 사골국물로 맛을 낸 구수한 MISO KAKUNI RAMEN

TEL (781) 643-4175

\$5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3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25 MASS AVE. ARLINGTON, MA. 02116
TEL 781-643-4175

\$10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5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5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 781 643 4175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방 준비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준비은행은 16일 마침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체로 크레딧 카드 대출, 스몰 비즈니스 론 등에 의존하는 많은 서민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준비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대불황에 맞서기 위해 7년간 지속해오던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내고 정상으로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이번의 금리인상은 소폭이지만 쉬운 대출금 시대의 마감 신호란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개선됐다고 평가한 연준은 성명을 통해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며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연준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만 가능할 것이며, 당분간 장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는 경제 전망에 의존할 것임을 강조했다.

재닛 옐런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상은 아주 소폭"이라며 금리인상에 과민반응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연준은 "물가가 2%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신중히 점검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인들은 연준의 결정이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미국 내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성장장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언급하며 행동하기에 늦을 때가 지 결코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준의 발표 이후 웰스파고는 프라임 금리를 현행 3.25%에서 3.5%로 인상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 초부터 계속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의 중요성은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무겁게 간주되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것은 지난 2006년 6월이었다.

상징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이번 연준의 인상은 실제로 크지 않았다. 이는 은행간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연방금리의 기금을 0.25% 올린 것으로 7년간의 제로금리였던 시대의 마감을 의미한다.

연준은 그러나 향후 점차적으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는 리플효과를 내어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대출 이자율의 상승, 스몰비즈니스 대출, 크레딧카드 이자율 상승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

다. 추후에는 장기 주택 모기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높은 대출비용은 임금과 가격상승을 억제해 경기의 과열을 억제한다.

스티펠 픽스드 인컴의 수석 경제학자 린지 피그자 씨는 "높은 이자율은 결국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주택 등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하고 대출하는 능력에 압력을 주며 구매와 건설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

스몰비즈니스 소유주: 스몰비즈니스는 늘 현금이 모자라고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폭의 금리인상도 예산에 영향을 준다. 0.25%는 큰 변

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작은 사업체는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카 딜러: 차 판매가 붐을 이뤄 올해 1천7백만대가 팔려 나갔다. 이는 처음으로 대불황이 시작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딜러들이 저렴한 이자율을 제시할수록 매출이 활발해지는데 높아지는 이자율은 차 구매 대출을 위축시킨다

제조업자: 제조업자들은 2014년 여름 이후 달러의 상승으로 해외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달러화 강세는 수입을 싸게하고 수출을 비싸게 만든다.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유도하므로 제조업자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증권 투자가: 지금껏 초저금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했다. 금리 인상으로 점차 주식시장을 떠나 채권 시장으로 투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소비자: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홈 이퀴티 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은 평균 11%의 크레딧 이자를 지급했었다. 이는 10년전 15%에 비해 훨씬 낮은 금리다. 이제는 점차적으로 15%대 고금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택 구입자: 장기 이자율 30년 홈 모기지는 지금 당장 연방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모기지 이자율도 따라 오른다. hsb@bostonkorea.com



자넷 옐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미국 동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은 치과 중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각종 모임, 지인들과의 식사모임에 오빠스시가 함께합니다.

사시미 TO GO :

광어회 소 \$50.00, 대 \$100.00

우럭회 소 \$60.00, 대 \$120.00

모듬회 소 \$70.00, 대 \$150.00

연말 연시 사시미 TO GO 주문시, 1월말까지 매운탕을 무료로 드립니다.

스시, 사시미, 마끼 COMBO :

\$99.95

(16 스시, 6가지 스페셜 롤, 15 사시미 포함)



사시미 풀코스 : 귀한 분, 소중한 분을 모실때 한국식 일식코스요리를 즐기세요. 단, 오시기전에 예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빠 스시 OPPA SUSHI www.oppasushi.com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감화 조적이 실어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 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박 대통령, 또 국회 책임론... "무슨 정치개혁인가" 비판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이어 국회 비판 발언으로 입법 압박

최근 한 달간 국회 심판론 이어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며 또 다시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가 지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국회가 총선에 전념하게 되면 자칫 경제 활성화 입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감과 위기감이 우선 반영된 언급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해당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데 이어 박 대통령이 다음날 국회를 꼬집는 발언을 하는 등 청와대는 중점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국회에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공급 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처럼 경제 위기론을 들어 원샷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지난번 꺼내든 '국회 심판론'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경제와 안전 문제의 화살을 국회, 특히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최근 한 달간 박 대통령은 국회 심판론과 관련,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14일 수석비

서관 회의) △"정치권에서 선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나"(8일 국무회의) △"이제 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참 가슴을 찢일이고 또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7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연말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한인 크리스마스 전까지 촉박한 만큼 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 측은 이에 관한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girin@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 20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위하여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 선거관리위원장을 다시 맡게 된 남궁연입니다.

지난 번 2012년 4월에 치러졌던 19대 총선과 12월에 치러졌던 제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 때 뉴잉글랜드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보스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대비 선거인 등록수가 미국내 10개 선거관리 위원회 중 평균 등록율 보다 5-6배 높은 등록률을 가질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등록 절차가 지난 19대 보다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9세 이상의 유효기간의 여권을 가지신 분은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기간: 2015년 11월 15일~ 2016년 2월 13일

신고, 신청방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k.nec.go.kr> / <http://ova.nec.go.kr>)
 - 2) 공관 직접 방문
 - 3) 우편
 - 4) 전자우편(e-mail)
- 상기 4가지 방법 중에 1)번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고, 신청절차: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k.nec.go.kr> / <http://ova.nec.go.kr>)로 접속
- 2) 선거인 유형 선택(국외부재자 또는 재외 선거인)
- 3) 이메일주소 입력(유효성 검증)
- 4) 신고,신청서 양식 작성

- 신청서 양식 작성요령

가. "성명" 란에는 여권에 적혀 있는 성명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나. "재외 선거인 구분" 란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란에 (v) 표시 후 "생년월일"을 적고 "성별" 란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 "부모성명" 란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 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부 또는 모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가족관계 등록정보" 란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 최종 주소지"를 적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본적지"를 적어야 합니다.

마.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바. "국외거소" 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거류국명과 주소는 영문 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단, 여권 사본과 기타 서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2016년 3월 30일~ 4월 4일까지이며 인터넷 검색창에 재외 선거를 쳐 보십시오.

이상과 같이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당일 투표장에서 여권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 여권만 지참하고 오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2일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렵게 얻어진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한 권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뉴잉글랜드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 지난 번 총선과 대선 때 미국 내에 있는 타 공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등록율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보스턴 총영사관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한인회보와 보스톤코

리아 등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뉴잉글랜드 교역자 협회회의 각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한 종교단체 지도자님들, 각 한인회와 직능단체, 학생회 간부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잉글랜드에 거주하시는 동포님들의 높은 정치적 안목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국외 부재자나 재외 선거인들께서 더 많은 유권자 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에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남궁연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 선거관리위원회 남궁연 위원장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DEC. 18TH - DEC. 24TH, 2015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Hello Home smile, you're home!
HOLIDAY CELEBRATION
 DEC. 19th, 2015 - JAN. 1st, 2016 AT ALL H-MART STORES
 Save big on some of the most popular housewares and home essentials.

BIG SALE SPECIAL
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끼 쌀 20 lbs. **\$21.99**
KOKUHO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9.99**
HAIOREUM Dumpling 해오름 손만두 Fried/Kimchi/Vegetable 265 lbs. **\$4.99**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26.99**
Fuji Apple 후지 사과 **\$1.4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4-16oz. **\$0.99**
Korean Chestnut 한국산 밤 **\$2.99**
Jeju Korean Jeju Mandarin 제주 만감 **\$1.4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29**
Boneless Beef Rib Eye Steak 소등심 스테이크 **\$9.99**
Rind-on Pork Belly Chunk 수육 삼겹살 **\$5.29**
Beef Heel Meat 소 사탕 **\$7.99**
Ox Feet 냉동 우족 **\$2.49**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gi 냉동 소불고기 **\$6.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프리미엄 영광굴비 10 lbs./pkg. **\$61.99**
TONGTONGBAY Dried Dashi Anchovy 통통배 다시말치 2lbs./box **\$20.99**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 size **\$6.99**
Squid 냉동 오징어 **\$1.99**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4.99**
Beltfish 생갈치 **\$4.99**

KUHAUS Mini Ceramic Fan Heater 미니 세라믹 히터 **\$29.99**
KOTO Porridge Maker 다용도 죽 제조기 **\$49.99**
KUHAUS High Capacity Humidifier 대용량 가습기 **\$39.99**
KOTO Elec. Rice Cooker 전기 밥솥 **\$24.99**
Mug Set 세라믹 머그컵 세트 **\$9.99**
Glass Lock 5pc Set 글라스락 세트 **\$19.99**
HELLO HOME Thermos Bottle 램블러 **\$7.99**
KOTO Elec. Hot Pot (Double) 전기 사브사브팟 **\$39.99**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4.2oz. x 16ea./box **\$9.99**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oz. x 12ea./box **\$14.99**
HAIOREUM Bun 해오름 호빵 All Varieties/9oz. **\$3.00**
SAMYAN Spicy Fried Chicken Noodle 삼양 불닭볶음면 4.9oz. x 5ea./pkg. **\$5.59**
DONGWON Canned Grilled Bai Top Shell 동원 구운 골뱅이 14.1oz. **\$5.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CHUNGJUNGONE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6.17 lbs. **\$7.99**
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All Flavors 1.5L **\$1.99**

WOONG JIN Morning Rice/Green Plum Drink 웅진 아침햇살/조목매실 1.5L **\$2.99**
H-MART & JEJU ISLAND PRESENTS THE FINEST FOODS FROM THE JEJU ISLAND
제주 특산물 전시판매회
 Dec. 18 - 20, 2015 at Hmart Burlington
Get SAM DA SOO WATER FOR FREE with Jeju product purchase. (First come, first served) 제주 특산물 구매고객에게 제주 삼다수 500ml 무료 증정 (선착순 한정수량)

FREE 2016 H-MART CALENDAR for Smart Card Members!
 H-Mart 2016년 달력을 스마트 카드 고객에 한해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정치'로의 복귀 요구받는 박 대통령... '설득' 필요

전문가들, 국회 심판론·국회의장 압박에 삼권분립 침해 우려
정치권·시민사회, 야 지도부 회동·기자회견·국민과 대화 제언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 간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계속 비판하고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박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굉장히 정치적이지 못하다. 박 대통령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득을 해야 된다"며 "대통령 주변에서 제대로 잘 어드바이스(충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11월10일), "정치권에서 선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나"(12월8일)라고 한 데 이어 전날(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정 의장에게 "선거법만(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선거법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불과 이틀 뒤인 이날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정 의장의 쟁점 법

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에 관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총선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어 국정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감과 위기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회 비판과 압박은 야당 반발과 명분 부족을 야기해 쟁점 법안 통과에 도리어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까지 제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는 이와 관련, "지금 대통령이 한두 번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압박·비판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마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가 안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건 내년(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정권 심판론을 미리 차단하려

는 게 아니냐는 우려나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대통령 대국민담화나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도 연일 이어지고 있어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소통과 설득이 부족한 '마이 웨이'식이라는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야당 지도부 회동, 여당의 협상 재량권 확보, 기자회견, 국민 당사자와 대화 등을 대안

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청와대에서 정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정국) 때, 그거는 훨씬 지난 얘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girin@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등 돌린 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정 의장의 배웅을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정 의장, 여 지도부 불러 "야당과 합의 노력하라"

김무성 "결론없는 얘기만 해"... 직권상정 거부에 유감

정 의장- 김무성·원유철·김정훈 등 여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

(서울=뉴스1) 심언기, 이정우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과의 쟁점법안 협상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직권상정을 무기로 의장의 야당압박을 기대한 새누리당과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 의장과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4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직권상정 불가입장

을 거듭 밝히며,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야(對野)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경제가 큰일 났다는 등 걱정을 같이 하고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경제관련 법안은 꼭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같이 했다"면서도, "결론 없는 이야기만 했다"고 직권상정 거부에 유감을 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를 위해서 더해보자는 말씀을 주셨다"며 "지금 국회의장이 더 중재를 해서 여야대표들이 모

든 쟁점법안, 그리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재차 직권상정을 요청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의장님이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데 거기가 대고 직권상정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부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 시간들이 촉박하니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끼리 자주 좀 만나자고 했다"면서, "자주(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지. (국회의장·여야 회동 때) 우리가 7시간 대화를 하면서 많이 근접시킨게 있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될거다. 기다려 보자"고 말을 아꼈다.

eonki@news1.kr



정의화 국회의장

정 의장 쟁점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선거구 재획정 안되면 입법 비상사태...연말연시 심사기일 정할 것"
"현 경제상황 전시나 사변 아니야...18세 유권자 연령 감안해야"

(서울=뉴스1) 서상현, 이정우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재획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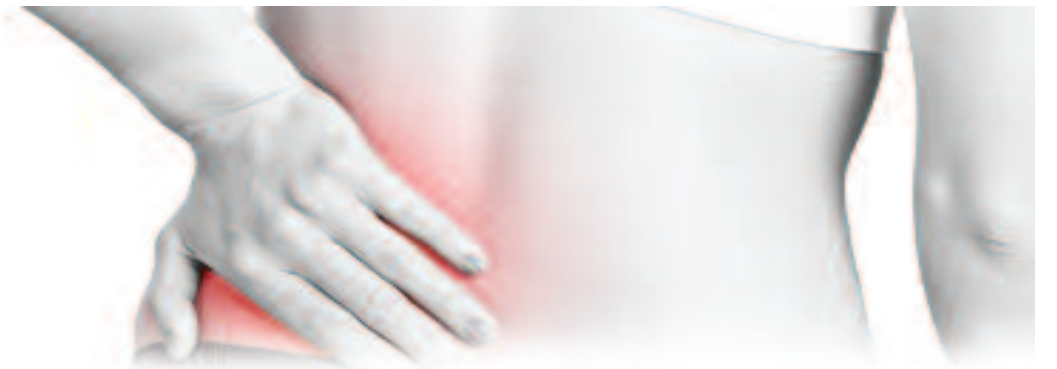
정 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손놓고 있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중요한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 2법 등 경제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거부 입장인 것이다.

정 의장은 전날(15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는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고 경제대국이기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earpure@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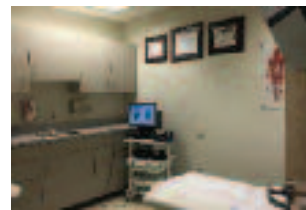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을 참지마세요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취급보험>
학생보험, 여행자보험, 개인보험PPO, 상해보험



원장: 윤창
Dr.Chang Yoon,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들리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클리닉 원장
버지니아 한국병원 원장
보스턴 노스이스턴 물리치료학 박사

Dr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LEE CHIROPRACTIC

부룩라인 척추신경 센터

“척추를 바로 잡자!”

원장: 이은혜
Dr.Eunheay Lee,DC

저희는 척추신경 전문병원으로,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기쁨의 웃음을 선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와 철학이며, 환자가 아닌 분들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통증치료,목,허리 디스크 교정
<취급보험>
학생보험,여행자보험,교통사고 보험,일반보험PPO

부룩라인 척추신경 센터 LEE CHIROPRACTIC

www.DrLeeChiro9.COM TEL: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안탈당 후...오히려 새누리·김무성 지지율 ↓, 새정치·문재인 ↑

리얼미터, 14~16일 지지율 조사...안, 박원순 제치고 3위
 새정치, 지지층 결집에 '마의 30%' 대 근접...문 지지율 0.9%p ↑
 안철수는 박원순 제치고 3위로 올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으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안 의원의 탈당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실시해 17일 공개한 정당별 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0.6%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7%포인트(p) 하락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6%p 상승한 29.4%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3%p 하락한 5.3%, 무당층은 1.2%p 감소한 21.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안 의원의 탈당 후폭풍으로 중도 지지

층이 이탈하며 하락했고, 새정치연합은 지지층 결집으로 30%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4일엔 전일 조사(11일) 대비 1.6%p 하락한 41.3%를 기록했고, 15일에도 41.1%로 소폭 내린 데 이어, 16일에도 40.5%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연합의 일간 지지율은 14일 전일 조사 대비 0.8%p 상승한 28.4%를 기록했고, 15일에는 27.2%로 하락했지만, 16일엔 30.7%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경우 경기·인천(5.8%p ↓)과 대전·충청·세종(8.3%p ↓), 중도층(4.1%p ↓)에서 주로 하락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울(2.4%p ↑), 경기·인천(6.2%p ↑)과 광주·전라(4.7%p ↑), 보수층

(2.8%p ↑), 중도층(3.2%p ↑), 진보층(1.9%p ↑) 등에서 고르게 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안 의원의 탈당 후폭풍으로 중도층(6.3%p ↓)이 이탈하며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2%p 하락한 19.6%로 문재인 대표에 0.2%p 앞선 1위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표는 안 의원의 탈당 후 3일 동안 진보층(3.8%p ↑)과 무당층(4.5%p ↑)에서 결집하며 0.9%p 상승한 19.4%로 2위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탈당 컨디션 효과'로 진보층(7.5%p ↑), 중도층(2.9%p ↑), 보수층(2.3%p ↑) 모두 고른 지지를 받으며 4.1%p 상승한 14.2%를 기록, 박원순 시장을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안 의원의 탈당 이후 '문·안 경쟁 구도'가 이어지며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1.2%p 하

락한 10.9%로 한 단계 내려앉은 4위를 기록했고, 오세훈 전 시장이 0.7%p 상승한 6.3%로 5위, 김문수 전 지사가 3.5%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몽준 전 대표가 3.1%,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3.0%, 홍준표 지사가 2.7%, 안희정 지사가 2.5%, 남경필 지사가 1.9%,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1%p 증가한 11.1%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682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결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2%(자동응답 5.2%, 전화면접 22.6%)였다. 통계보정은 2015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p이다.
 birakoca@news1.kr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탈당배경 기자회견을 위해 전북 전주 전라북도의회에 들어서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넓은 정치 못바꾸면 더 이상 정치 않겠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7일 "넓은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했던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넓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 열망에 불려나와 정치를 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넓은 정치를 바꾸는 게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넓은 정치를 바꾸려 노력했다. 진심이다"고 강조했다.
 유성엽·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과의 연대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나을 됐다"면서 "앞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생

각"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제 주위에) 모이는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도 10·28재보궐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이 심판을 받으면서 제 고민이 더 깊어졌고,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커졌다"면서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혁신전당 대회를 제안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탈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 질 것이라면 차라리 외부에서 커다란 충격으로 혁신 경쟁에 나서서 국민 관심 받는 게 살길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저와 새정치연합은 혁신 경쟁 할 수밖에 없고, 치열한

혁신 경쟁 속에서 시너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탈당 후 저희가 여론조사에 포함되면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40%대에서 30%대로 하락하자 새누리당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도 야권의 저변 확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13일 탈당 선언을 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와 고양인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탈당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전북 전주를 찾았다.
 이날 오후에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광주로 이동해 1박2일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mellotron@news1.kr

안,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 개념 자체가 없는 대통령"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의 개념 자체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하면서 국회의장에게 무리하게 입법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부산, 전주에 이어 이날 '안풍(安風)' 진원지였던 광주에서 1박2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이념적으로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념논쟁은 고급논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념논쟁 이전에 합리적인 사람이려면 참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비상식의 관점에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일'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국가개조를 말씀했는데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21세기 대한민국을 글로벌·정보화시대에서 1970년대 대한민국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노동계약 등 그동안 비상식적인 일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지적에는 "그동안 많이 있었던 정부 실정에 대해 발언을 했지만 많이 묻혔다"며 "강력하게 나서

지 못한 제 실력 탓이지만 제 위치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좀 더 가열차게 문제제기하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호남에서 불었던 '안풍'이 광주에서 재현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거듭 "믿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고 선택한 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 그것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광주에서 불어준 '강철수'라는 별명처럼 이제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동시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또 "60년 전에는 가난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지만 산업화로 해결했고, 자유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는 민주화로 해결했다"며 "2015년 시대적인 과제는 격차해소와 통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실정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정권교체가 돼야 정치가 정신을 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기관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한 정당에 줄을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권교체가 필요하며, 여야 모두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총선 제1목표는 새누리당의 개헌 저지선 확보"라고 했다. moonsun@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분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제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증인 '모르쇠' 일관...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허탈한 종료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최은지 기자 = 지난 1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가 유가족들의 눈물과 아쉬움, 증인들의 '모르쇠' 일관 답변 속에서 허탈하게 끝났다.

16일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제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청문회는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일정에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당시 민간잠수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과 장례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단원고등학교 희생자의 아버지인 정모(47)씨는 "사건 발생 초기에 안내해주는 사람도, 설명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씨는 발언 중 흐느끼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저는 가슴에 묻을 수 없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며 특조위원들에 요청하면서 아이들의 수습된 시신 사진을 공개했다. 유가족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흐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선체에 처음으로 들어간 잠수사로 알려진 전모(39)씨는 수습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 "7월10일 민간잠수사들이 쫓겨난 이후 누구 하나 치료하라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해 유가족들이 아우성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민간잠수사 김모(41)씨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왜 나

와야 했는지 왜 쫓겨나야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에는 같은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당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진행했다.

전날 오후 서면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조위 지원 소위원회 위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과장된 발표와 허술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했지만 유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해수부와 안행부 등은 당시 조치를 하고 있었고 범대본 구성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요에 즉각, 신속,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컨트롤에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김선혜 지원소위원장의 질문에 "없었다"면서 "아단치기도, 격려하기도 하는 분위기 속에서 범대본을 이끌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한 게 없으니까"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청문회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증인들의 '모르쇠' 논란은 이날도 지속돼 유가족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이 전 장관은 정부 측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당시 언론이 참사를 과장, 오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해수부 상황보고에 의해 '전원 구조' 오보가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

위원장은 "범대본 장관으로, 해수부 장관으로 이 의원은 다 알고 있다"면서 "그 당시 상황 공개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내용을 물어달라"고 김선혜 지원소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전 장관은 "(참사 당시) 구조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시인하면서 "해경도 해수부 장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중 특조위원이 당시 업무조정실에서 정부 대응의 계획에 대해 만들어진 초안이 있는지 따져 묻자 이 전 장관은 "오래돼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심문을 이어가면서 청문회가 길어지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에 유가족은 "계속하세요", "밤 새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 기회를 달라"면서 소리치며 반발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해수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사죄의 뜻을 담은 묵례를 했지만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밤까지 3일간 계속 증인으로 출석한 김문홍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소 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서장은 "많은 구조세력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정보가 한정돼 있었고 나름대로 지시를 했지만 아쉽다"면서 "속죄하는 마음이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유가족은 더 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김 서장은 이호중 특조위원과 날이 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서장은 이 위원에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어제 다 끝났는데 (같은 질문을 하는) 저의가 뭐냐. 나는 인권이 없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유가족과 이 위원은 "우리 아이들은 인격이 없느냐", "가족과 국민은 오늘로 610일째 진실을 기다린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16일 청문회 마지막 날은 앞선 이틀보다 한 시간가량 오래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는 약 1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방청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모르쇠' 일관의 청문회에 대해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박종대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3일 동안 분통 터지는 증언 들어야 했던 유가족들은 증인보다 더

힘들었다"면서 "눈에는 피눈물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모질 것이지만 진실을 기다리는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조위는 용기를 가지고 힘찬 싸움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차 청문회의 의미에 대해 "진상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특조위가 어떤 방향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우리는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청문회에 임했다"면서 "3일 간의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실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15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이틀째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잠수여건 안돼" 발언에 유가족 '울분'

(서울=뉴스1) 정재민, 이주성, 정혜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잠수사를 곧장 투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당시 기상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잠수사들이) 입수할 수 없었다"고 답해 유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렸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전날부터 열린 가운데 15일에도 청문회는 정부의 초동대응의 부적성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현재 555명의 잠수사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청장은 "555명의 잠수사가 동원된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그 인력이 동원된 뒤 잠수하는 인원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호중 특조위원은 "왜 그런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느냐"면서 "555명 동원이라고 하면 당시 자리에 있던

대통령과 국민 역시 '엄청난 인력이 잠수한다'고 오해를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전 청장은 "투입이라는 용어와 잠수는 다른 의미"라면서 "잠수는 한 번에 들어갈 때 2명씩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이 다시 "이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는 짓"이라고 하자 김 전 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투입이라는 용어는 잠수를 직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은 "증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서 "당시 가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몇 명이 잠수해서 수색하느냐'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런 사람(김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질의를 중지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김 전 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이 없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본의 전복사고를 들어 설명을 시도했지만 유가족들의 강한 반대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이석태 위원장은 오후 2시38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왜 부모들이 병들어가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소리치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청문회는 약 150여명의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는 사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참석했다.

특조위원들은 해경의 참사 초기 대응과 청와대 보고와 지시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에도 증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유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ddakbom@news1.kr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3일은 부족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일정을 마친 유가족들이 청문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청문회 종료 직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3일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공허한 책임론만이 오갔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은 "3일간 굉장한 질의·응답이 오갔다"며 "많은 증인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둘러댔다"고 말했다.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는 31명의 증인 중 김윤상 언더 사장과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제외한 29명이 출석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기에 3일간의 청문회는 너무 부족했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을 남기기 위한 첫 발자국을 땀을 뺀"이라고 평가했다.

박진 4·16연대 운영위원은 "참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 제공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박종대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두 민간 잠수사를 언급하며 "특조위는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을 했던 잠수사들이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야 했는지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ddakbom@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나물,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구분	비율	비율
남자컷	25%	여자컷
디자깅	130%	퍼마
염색	100%	트리트먼트
손질	100%	머리관리
머리관리	100%	머리관리
머리관리	100%	머리관리
머리관리	100%	머리관리
머리관리	100%	머리관리
머리관리	100%	머리관리
머리관리	100%	머리관리




남자컷 25% / 여자컷 30% / 퍼마 70% 부터
디자깅 130% 부터 / 개머핀 100% 부터 시작합니다.

장학 연구생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e@HammondRE.com



주윤희
Ilm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일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of Boston

<판공성사>
12/6일, 13일, 20일 주일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목) 8pm

<성탄절 행사 & 미사>
성탄 맞이 분당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12월 25일(금) 12:15pm
미사
12월 25일(금) 4pm

<송구영신 미사>
12월 31일(목)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금) 11:30 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권리와 거룩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21명 영적성장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Broker/Member of RE/MAX)

www.ganainrealty.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4-2404
www.bostonkorean.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텍사스 US 월드 링컨 프로
ej.usgw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전례 마땅한 삶을 영위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진심, 온전, 진리, 사랑, 용서, 부활을 영감받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위로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지사부터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Efit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로 모든 카드국 처리시스템 제공, 최적의 결제처리 시스템을 도입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UMS 대표이사 겸 대표이사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에 National Grid와 συνεργ하
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역간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절약 내역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이사장 / energy@slp-seon.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광만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점心和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이지나
변호사



이소연
변호사



박소나
변호사



Yoon Wa
공익연수생



박경명
서기관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병역의무 복수국적자 3개월 내 국적선택 의무' 합헌

현재 "시기적 제한 없으면 군복무 중에도 병역 면할 수 있어" 모계출생자 한국국적 취득기간 제한도 합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를 갖게 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내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가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2국민역 등 병역의무가 없게 된 때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택해야 한다.

현재는 "병역의무가 생긴 뒤 일정기간 내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며 "국적선택

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근거를 외국에 둔 이중국적자는 적극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병역 이행 혹은 면제의 방법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적이탈에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군복무 중이라도 한 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국적선택의 자유와 병역 형평이라는 양쪽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여성과 남성 복수국적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한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은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예외 없이 적용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주요공직 등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는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적특례 조항인 이 조항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1978년 6월 14일~1998년 6월 13일 출생)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

적법이 부계 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 원칙으로 바뀜에 따라 그 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12월 시행됐다.

현재는 "기간을 제한한 것은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를 두면서 기간을 3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박한철 헌법재판소소장과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박 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년 2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정윤희씨를 둘러싼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당시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엄밀히 구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하지만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의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시각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를 희화화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이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선고를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

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무척 유감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 역시 이례적일 만큼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abilityk1@news1.kr



황교안 국무총리

검찰, 황교안 총리 '특별사면 로비 의혹 고발 사건' 각하

"특사 청탁 받은 증거 없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황교안(58) 국무총리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말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특별사면과 관련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황 총리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사면업무 총괄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면 관련 로비를 벌였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12일 황 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면 자문의 경우 변호사 업무 범위 내에 있고 당시 황 총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boazhoon@news1.com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아파트 / 한국 및 캐나다 거주자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5,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s,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44 / 2009년 144개 사무소 /
2010년 144개 사무소 / 2011년 144개 사무소 / 2012년 144개 사무소 /
2013년 144개 사무소 / 2014년 144개 사무소 / 2015년 144개 사무소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915,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Drycleaner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패트리어츠 주전 선수들 부상자 속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어츠에서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시즌 들어 거의 매주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 2년차 디펜시브 태클인 도미니크 이즐리가 2년 연속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올해 시즌을 마감했다. 이즐리는 지난 13일 열렸던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해 경기장을 떠난 후 다시 복귀하지 못했다.

패트리어츠의 주전 러닝백 르개렛 블런트 역시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블런트는 엉덩이 부상을 당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즐리와 블런트는 15일에 공식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패트리어츠는 올해 들어 14명의 선수가 복귀할 수 없는 부상을 당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부상자 명단에 있는 레프트 태클 네이트 솔더, 러닝백 디온 루이스, 풀백 제임스 데블린 같은 선수는 패트리어츠 전력에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다.

이즐리는 텍사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이즐리는 남은 3번의 정규시즌 경기는 물론, 포스트 시즌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다.

2014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패트리어츠가 지명한 이즐리는 이미 대학 시절 두 번이나 큰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은 전력이다. 두 번 모두 무릎 부상이었다. 루키 시절 이즐리는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11경기에 출전한 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역시 이즐리는 11경기에 출전했다. 올해 이즐리는 15개의 태클과 2개의 쿼터백 색을 기록하며 패트리어츠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블런트는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많은 703 러싱 야드, 165번 러싱을 시도한 선수다. 패스 리시빙을 포함하여 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루이스와 블런트, 두 명의 주전 러닝백을 잃은 패트리어츠의 러닝백 선수는 종잇장처럼 얇아졌다. 현재 패트리어츠 로스터에 올라 있는 러닝백은 2명밖에 없다. 블런트 부상 이후 패트리어츠는 올해 브롱코스에서 방출된 러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많은 러싱 야드를 기록 중이던 러닝백 르개렛 블런트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다

닝백 론티 볼을 연습 선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습 선수가 정식 선수로 계약을 하고 경기장에 서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텍사스와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승리하고,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돌핀스가 패배를 기록하면서 패트리어츠는

지구 우승을 확정 지었다. 7년 연속 지구 우승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패트리어츠는 올해 1차 목표는 이룬 셈이다.

작년에 이어 패트리어츠가 2년 연속으로 수퍼볼 우승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

패트리어츠가 남은 정규 시즌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남은 선수들이 부상 당한 선수의 몫을 해내는 수밖에 없다.

jsi@bostonkorea.com

[NBA] '회춘한 코비 22득점 폭발' 레이커스 6연패 수렁 탈출

코비, 최근 5경기 18.2득점 야투율 47%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코트를 떠나는 코비 브라이언트(37·LA 레이커스)가 최근 전성기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시즌 초반 부진했던 이미지를 씻어내고 있다.

브라이언트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2015-16 미국프로농구(NBA) 밀워키 벅스와 경기에서 22득점 6어시스트로 활약했다.

브라이언트의 활약에 힘입어 레이커스는 113-95로 승리, 6연패의 수렁에서 탈출했다. 레이커스는 시즌 4승(21패)째를 올렸다.

브라이언트는 NBA 역대 득점 랭킹 3위, 정규시즌 MVP 1회, 5번의 우승 등 많은 업적을 남긴 레전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킬레스건, 무릎, 어깨 등 잦은 부상으로 기량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시즌 초반 야투율이 30%대 초반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결국 지난 달 30일 브라이언트는

은퇴 의사를 밝혔다. 브라이언트는 현지 매체를 통해 "농구를 더 이상 미친듯이 사랑하기 어렵다. 이번 시즌이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라며 시즌 뒤 은퇴를 공식화 했다.

그러나 은퇴를 선언한 뒤 브라이언트의 경기력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워싱턴 워저즈와의 경기에서는 시즌 최다인 31점을 몰아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날 밀워키전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는 페이스가 더 좋다. 5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평균 18.2득점을 올렸고 야투율은 47%로 좋아졌다.

시즌 초반과 같이 무리한 슈팅을 던지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 쉬운 슈팅 찬스를 만들어 시도한다. 또 자신에게 수비가 집중되면 절묘한 패스로 동료들의 득점을 도왔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쿼터였다. 브라이언트는 상대 수비수로부터 파울을 얻어내며 3점 슈팅을 성공시켜 4점 플레이를 완성시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

켰다. 이후 자신에게 수비가 집중되자 골밑에 있는 동료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찢러줘 어시스트를 연속해서 기록했다. 브라이언트의 활약으로 레이커스는 20점차 이상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손쉽게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브라이언트가 언제까지 최근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브라이언트가 이와 같은 활

약을 이어갈 수 있다면 명성에 어울리는 마지막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yjra@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곡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문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문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밴앨모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진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형태역직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중얼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경주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유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국제보석사	617-523-2553
미태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셔츠/드라이클리닝 출세일합니다 (픽업/달리버리 가능) 뉴햄프셔/매사추세츠
T. 857-800-4628

한인식당에서 웨이츄레스/웨이터 풀타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424-2872 (청기와)

뉴스타부동산 렉싱턴 사무실에서 Receptionist 로 일할 분을 구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본인 이력서를 이메일(jy.p617@hotmail.com)로 보내주세요.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은퇴관계로 일식 레스토랑 싼 가격에 매매합니다.
T. 978-494-2712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2 bedrooms 아파트먼트 렌트, 크랜스턴 로드 아일랜드
T. 401-943-7178, 401-383-7311

N[구인]
미디어 분야에 일할분을 찾습니다
경험자 환영합니다
T. 706-988-8041

N[구인]
헤어디자이너 구함
T. 470-299-6195

N[구인]
조지아에서 1시간 30분 거리 외곽지역 한식주방보조 및 헬퍼구함. 숙식제공
T. 478-293-2311

N[구인]
경력스시셰프 1명, 초보자 스시 셰프 1명
차타누가 테네시 지역
T. 423-316-1535

N[셀폰가게 매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자리잡은 가게 알라바마 지역의 몽고메리
T. 334-819-4206, 334-201-4707

N[매매]
10년된윙가게 월매상 \$42,000, 렌트 월 \$1,250
창고에서 50분 거리 웨스트조지아에 있음
매매가 \$260,000
T. 678-387-7434

N[매매]
Warner Robins 공군부대앞 미용실 매매 합니다
T. 478-213-3089

N[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여 성업중인 식품점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정육 및 생선부를 함께 운영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T. 256-683-0333 (Ask Mr. Shi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다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비율	비율
유급기간	47%	58%
유급기간	91%	103%
유급기간	228%	240%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로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각들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0	290만원	20000	400만원	70000	790만원
50000	390만원	30000	450만원	80000	99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오스템 임플란트	무식제 라미네이트	오스템 미백 1회
150만원	80만원	20만원
120만원	6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이용하고 건강할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한 이유

스페이스 힐링 케어	스페이스 힐링 스칼프 케어	스페이스 슬리밍 케어
120min	120min	120min
19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20만원	25만원
32만원	26만원	30만원

HURAM
Meditour Traveler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대호', 최민식이기에 가능했던 호랑이 사냥꾼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최민식이 영화 '대호'를 통해 대체 불가한 열연을 선보이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배우의 위상을 입증했다.

지난해 176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영화 1위 타이틀을 거머쥔 영화 '명량'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임을 입증한 최민식은 지금껏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에게 놀라움을 안겨왔다.

'넘버 3', '조용한 가족', '쉬리', '해피엔드', '파이란', '취화선',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을 비롯한 굵직한 작품들부터 최근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그리고 할리우드 진출작 '투시'에 이르기까지 최민식은 명불허전 연기력과 카리스마를 과시한 바 있다.

최민식은 '대호'를 선택한 이유로 "'대호'에서 조선 호랑이는 민족의 정기일수도 있고,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순수한 정서, 자존심일 수 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호랑이가 아니라, 대자연과 더불어 이 호랑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적인 상징성에 매료돼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호'는 대자연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얻으며 살아갔던 인간 천만덕의 삶을 그리고 있는 한편, 그 이면에는 다른 생명을 취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사냥꾼 천만덕의 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대표적인 대호와 천만덕을 통해 그들의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가치에 대한 애수까지 끌어내며 묵직한 울림을 전한 것.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힘은 전적으로 배우 최민식에게서 나왔다. 최민식은 영화 18도 흑한의 한겨울 눈 덮인 지리산에서 뛰고 구르는 액션연기를 직접 해내며 열연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호랑이를 상대로 오직 상상력에 의존해 교감하려 노력했다.

그는 대호와의 장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과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하나뿐인 아들 석이와의 장면에서는 깊은 내면 연기와 절절한 부성애로 클래스가 다른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언론과 관객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uu84@news1.kr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마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관객들을 만족시킬 관전포인트를 공개했다.

17일 개봉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예매 관객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개봉 전부터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까지, 극장 3사 사이트에서 압도적인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10년 만의 귀환을 알리며 시리즈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1. 압도적 스케일!

2015년, '스타워즈'가 환상적인 비주얼로 재탄생!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 시리즈를 뛰어넘는 진보된 기술력으로 다시 태어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주얼. 10년만의 귀환을 알리며 다시 돌아온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광활한 세트장과 고품질 CG효과로 시리즈 팬들의 기대감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특히 CG에 의존했던 프리퀀 3부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은 실제 촬영으로 진행, 리얼리티까지 더해져 더욱 완벽해진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메가폰을 잡은 J.J. 에이브럼스 감독은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에도 현실감과 사실성을 가진 '스타워즈' 시리즈를 잇을 수 없었다. 이번 작품 또한 현실적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관객들도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세트장을 적극 활용했다. 이처럼 제작진들의 수많은 고민을 통해 탄생된 압도적인 스케일과 현실적인 비주얼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완성도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것이다.

2. 시리즈의 전설과 새로운 주역들의 만남! 시리즈 '신-구' 캐릭터의 완벽한 조합!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캐스팅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시리즈의 대표 캐릭터로 다시 돌아온 한 솔로(해리스 포드 분)와 레아 공주(캐리 피셔 분) 등 기존 캐릭터를 비롯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차세대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되며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의 서막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것. 먼저 레아 공주에 이어 새롭

게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은 레이 역의 데이지 리들리와 스톱트루퍼를 거부한 채 정의의 위해 싸우는 핀 역의 존 보예가는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 2015 기대되는 배우로도 뽑히며 최고의 기대주로 거듭나고 있는 차세대 스타.

여기에 다스베이더를 이을 악역 캐릭터 카일로 렌을 맡은 아담 드라이버까지, 이처럼 더욱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캐릭터들은 전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한 이번 시리즈의 제작자 캐서린 케네디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스타워즈'를 보고 자랐다. 여러 세대가 모여 이 영화를 함께 제작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다."고 말해 새로운 캐릭터와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 주역들의 완벽한 호흡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3. 차원이 다른 드로이드 등장!

BB-8! CG가 아닌 실제로 제작되다?!

개봉 전부터 이번 시리즈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드로이드 BB-8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J.J. 에이브럼스 감독이 축구공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된 'BB-8'은 원형의 몸체를 굴리면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기존의 드로이드와 차원이 다른 모습. 특히 'BB-8'은 CG가 아닌 실제 움직이는 로봇으로 제작되어 보다 현실성을 살려냈다. 실제 만들어진 'BB-8'을 배우들 또한 실제 인격체처럼 대했으며, 영화 내에서도 사실적이게 표현되어 배우들의 연기 몰입도를 더했다. '핀' 역의 존 보예가는 'BB-8'에 대해 "작업하는 내내 정말 재미있었다. BB-8은 세트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으며, 레이 역의 데이지 리들리 또한 "내가 함께 촬영한 첫 등장인물인 BB-8과의 촬영은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장됐다. 그러나 BB-8은 놀랍고 굉장하다. 모두가 BB-8을 좋아할 것이다"고 말하며 새로운 드로이드 'BB-8'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기존 드로이드와 차별화된 디자인에 실제 캐릭터 못지 않은 현실성이 더해진 'BB-8'은 'R2D2'를 잇는 상징적 캐릭터로 자리매김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reddgreen35@news1.kr

'마리와 나' 강호동, 아기 고양이 앞에선 '강블리'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마리와 나' 강호동이 '강블리'로 거듭났다.

16일 밤 10시50분 첫 방송되는 JTBC '마리와 나'에서 야생 호랑이 강호동은 생후 2개월 된 아기 고양이를 맡아 돌보게 된다.

강호동은 예능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지만 반려동물을 돌보는 실력은 초보수준이다. 평소에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은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난생 처음 고양이를 돌보게 된 강호동은 아기 고양이 토토와의 첫 만남에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 시후를 처음 배 위에서 재웠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며, 연신 아빠 미소를 지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아기 고양이를 다정다감하고 조심스럽게 돌봐 '강블리'



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reddgreen3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2월 7일 ~ 12월 13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8.2%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26.4%
3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1.1%
4	MBC	주말드라마(엄마)	18.0%
5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16.6%
6	KBS1	KBS9시뉴스	16.3%
7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4.6%
8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4.2%
9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13.3%
10	KBS2	해피선데이	13.1%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4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5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6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9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0	MBC	수목미니시리즈(달콤살벌패밀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DADDY (Feat. CL of 2NE1)	싸이
02	유레카 (Feat. Zion.T)	지코 (ZICO)
03	나팔바지	싸이
04	밤의 멜로디	브라운 아이드 소울
05	못먹는 감 (Sour Grapes)	San E
06	Dear Santa	소녀시대
07	Boys And Girls (Feat. Babylon)	지코 (ZICO)
08	또 다시 사랑	임창정
09	Sing For You	EXO
10	우주를 건너	백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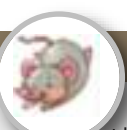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7		8				5	6
		9			3	7	2	
	1			5				9
		8		7		3		
			1	3	4			
		5		8		2		
5				4			1	
	6	3	7			5		
2	8				5		7	

12월 20일 - 12월 2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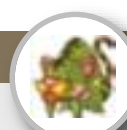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쥐띠 | 서서히 해결되고

● 운수: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나 도중에 포기한 것 등을 되돌아보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경제적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나갔던 돈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깊어지면 상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2, 26일 길일. 20, 23일 주의.



소띠 | 겸손한 마음으로

● 운수: 격려와 칭찬은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것을 체험해보세요. ● 금전: 지난날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 애정: 조금씩 이성으로 가까이가오는 상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때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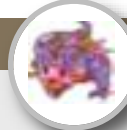
범띠 | 에너지를 재충전할 때

● 운수: 때로는 유유자적한 세월을 보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때입니다. ● 금전: 욕심을 부릴 때는 매물치게 행하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빠른 행동이 결과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 애정: 생활이 차츰 밝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토끼띠 | 재삼검토하고 결정하는

● 운수: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덮어 놓고 넘어가면 순간은 편안하나 나중에는 화근의 씨앗이 됩니다. ● 금전: 금전 문제는 직접 맞닥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도 재삼검토하고 결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주입니다. ● 애정: 현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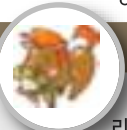
용띠 |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 운수: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고마운 소식도 들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붙는 주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잘 살려서 행동에 옮기면 금전적인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상대측에서 호감을 가지고 이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주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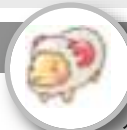
뱀띠 |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 운수: 오늘은 해가 지더라도 내일의 해가 뜨는 법입니다. 기회는 만들면 항상 있는 것이니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일을 까지도 전에 병아리부터 세고 있군요. 아직은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 애정: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성문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말띠 | 급할수록 돌아가라

● 운수: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양보하지 말고 쟁취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마세요. 일처리에 있어서 순발력을 잘 발휘하면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비밀이 있다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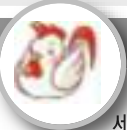
양띠 |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 운수: 일과 근심걱정에 쫓겨서 쉴 틈이 없는 때이니 과로는 삼가고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 금전: 무작정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에는 고생만 하고 특이 안 됩니다. ● 애정: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잘 해결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원숭이띠 | 빛이 보이는

● 운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빛이 보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은 과감히 하도록 하세요. ● 금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이 따라옵니다. ● 애정: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세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면 진실을 알게 된 상대는 진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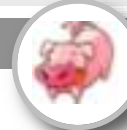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닭띠 |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 운수: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세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기존의 것이 더 좋을 때이니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6일 주의.



개띠 |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 운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곳에 머무르지 말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 속에 깊이 있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2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꿈이 현실로 나타나니

● 운수: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대인관계를 폭 넓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너무 물질적인 것에 얽매면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작은 것에 푹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황홀한 꿈이 현실로 나타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AOA 초아, 솔로도 문제없다

'불꽃' 1위 등극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AOA 초아의 '불꽃'이 주요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초아가 가장한 리턴프로젝트 '불꽃'은 7일 오전 0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직후 멜론, 엠넷, 지니, 벅스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의 상위권에 올랐으며 엠넷과 올레뮤직 1위를 점령했다.

리턴(re;turn) 프로젝트는 과거 인기를 얻었던곡에서 랩 부분을 선율로 새롭게 새로운 메이킹하여 교체하는 작법으로 기존곡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이끌어내는 기획 앨범 시리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국내 최고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도훈과 PJ의 공동 작품인 '불꽃(Feat. 개리)'가 선정됐다. 2006년 발매된 '불꽃'은 실력과 보컬리스트 장혜진의 독보적인 보이스와 더불어 그룹의 멤버 개리가 직접 랩 메이킹을 비롯, 피쳐링으로 참여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얻은 바 있다.

초아의 단독 가창으로 새롭게 재



구성된 2015 버전 '불꽃'은 풍부한 감성과 호소력 짙은 음색이 어우러지며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한 전율과 절제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원곡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더욱 세련된 사운드로 재구성하기 위해 작곡가 PJ와 이종훈이 손을 잡고 편곡과 프로듀싱 등 제작 전반에 참여했으며, 초아 역시 그룹이

아닌 단독으로는 처음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아이돌 가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집중력과 가장 실력을 뽐내며 그동안 쌓아온 내공을 유감 없이 발휘했으며,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최상으로 높였다.

lee1220@news1.kr



노홍철 "실망감 덜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노홍철이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방송인 노홍철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tvN '내 방의 품격' 제작발표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시청자분들과 많은 분들께 사과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방송으로, 또 방송 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어떤 말로 사과를 드려도 제가 저지른 큰 잘못이 씻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느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내 방의 품격'은 우리집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인테리어 정보를 전하는 방구석 환골탈태 인테리어 토크쇼다. 노홍철, 박건형, 오상진, 김준현이 MC를 맡았으며 오는 23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star@news1.kr

'해피투게더' 최현석, 딸 앞에서는 허세 아닌 팔불출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해피투게더' 최현석이 허세를 벗고 팔불출 면모를 드러냈다.

최근 진행된 KBS2 '해피투게더' 녹화에는 김승우, 장항준, 최현석, 김일중이 출연한 '잡혀야 산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최현석은 트레이드마크인 '허세 셰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팔불출 딸 바보의 면모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슬하에 미모의 두 딸을 둔 최현석은 자신의 딸은 셰프를 해선 안 된다고 단언하며 "주방 남자들 속에 우리 딸이 섞여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열이 오른다"고 남다른 반대 사유를 털어놓아 웃음을 자아냈다.

lee1220@news1.kr



천지보설

운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G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리화가' 아름다운 스토리 + 배우 열연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도리화가'는 1867년 여자는 판소리를 할 수 없었던 시대, 운명을 거슬러 소리의 꿈을 꾸었던 조선 최초의 여류소리꾼 진채선(배수지 분)과 그녀를 키워낸 스승 신재효(류승룡 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먼저 조선 최초의 판소리학당 동리정사를 설립한 판소리 대가 신재효 역의 류승룡은 “지금으로 치면 음악학교 같은 학당을 지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최고의 예인들을 키워낸 인물이다”라며 신재효와 동리정사에 대한 설명을 전하며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지는데요, 소리하다 죽을라요”라며 당돌한 모습을 선보이는 배수지는 사투리와 남장 연기, 1년 여에 가까운 판소리 연습을 통해 조선 최초 여류소리꾼 진채선 역을 소화하며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을 간직한 여인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또한 동리정사의 소리선생 김세종 역의 송새벽은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고, 한판 놓고 싶게 하는 부분들이 저를 쿵쾅거리게 했다”며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전하며 연기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여기에 흘겁의 한복만 입은 채 폭포를 맞으며 소리를 하고, 물에 빠지는 열연을 선보이며 몸을 사리지 않는 노력을 보여준 배수지를 비롯, 판소리 연습을 함께한 류승룡, 송새벽, 이동휘, 안재홍의 모습은 때론 진지하면서도 맛깔 나는 연기를 펼치는 환상적 호흡으로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남원과 순천, 충청남도 부여, 경상북도 문경과 안동, 경상남도 합천 황계폭포 까지 배우들과 제작진의 전국을 누빈 방대한 로케이션은 역사 속 장소와 가장 흡사한 공간을 찾기 위한 남다른 노력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uu84@news1.kr



여자는 판소리를 할 수 없었던 시대 그녀의 소리가 시작된다

티보플레이 12월 2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MBC | 내 딸 금사월 |
| 3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4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 5 | MBC | 최고의 연인 |
| 6 | MBC | 내일도 승리 |
| 7 | KBS | 가족을 지켜라 |
| 8 | SBS | 육룡이 나르샤 |
| 9 | KBS | 다 잘될거야 |
| 10 | MBC | 달콤살벌 패밀리 |

티보플레이 12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풍당풍당 러브 |
| 2 | MBC | 최고의 연인 |
| 3 | CJ E&M |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
| 4 | CJ E&M | 나에게 건배 |

티보플레이 12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바라는 바다 | 고두심, 박건형 |
| 2 | 무서운 집 | 구윤희, 양병간 |
| 3 | 도리화가 | 류승룡, 배수지 |

윤두준, 코믹+진지 오가며 '조선판 여심스틸러'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풍당풍당 러브' 비스트 윤두준이 조선판 '여심스틸러'로 등극했다.

윤두준은 지난 13일 방송된 MBC 드라마 '풍당풍당 러브'(극본·연출 김지현) 1회에서 조선의 젊은 왕 이도로 변신, 기우제 도중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아이' 장단비(김슬기 분)와 만나 펼치는 오묘한 로맨스를 열연했다.

tvN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2' 종영 이후 6개월 여 만에 차기작으로 단막극 '풍당풍당 러브'를 선택한 윤두준은 앞서 다수 작품으로 쌓아 온 연기내공을 이번 드라마 내 여과 없

이 드러내며 호평을 이끌었다.

전작에 이어 또 한번 '로맨틱 코미디' 장르 감자임을 몸소 증명한 윤두준은 '풍당풍당 러브'로 사극, 로맨스, 액션까지 다 되는 차세대 '로코킹'의 성장 가능성을 드러내며 차근차근 그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 이처럼 무궁무진한 연기 스펙트럼과 더불어 조선판 '여심스틸러' 이도로 활약 중인 윤두준이 차주 공개 될 최종화를 통해 미래국 소녀와의 꿈 같은 러브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lee1220@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4.99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본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지역 방송권역만 해당되며 The Best On Demand 4, TBO On Demand TV는 유료로 시청 가능하며 TBO 내선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본사에서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ae@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su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6만~7만, Asking **\$20,000**
6.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8.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9.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0.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1.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12. 렌트 : 25 Baker St, Belmont, 3bed 1.5 bath 1,500sf, 벨몬트 High school에서 5분거리, **\$2,2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27회

'힘'보다는 '덕'을 세우는...

귀밑머리 하나둘 하얗게 물들고 돋보기안 경이 집안 여기저기에 하나둘 더 는다. 나이 든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 늙다는 것 아니 늙어간다는 것 굳이 싫다 좋다가 아닌 그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이 아니던가. 그 나이 들어 가는 일이나 늙어 가는 일에 발버둥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잠시 멈춰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자신 있는 이는 도망치거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다,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도 그 어른들이 걸던 길을 걷고 그렇게 그 길따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이다.

외출하고 돌아온 후 처음으로 들르는 곳이 화장실이다. 물론, 바쁜 일과를 보는 일도 중요할 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울 앞에 서는 일이다. 먼저 손을 씻은 후 이마와 눈 주위 그리고 입가 주위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로션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크림을 넉넉히 발라주는 것이다. 색조 화장은 잘하지 않는 편이고 피부 손질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산을 좋아하니 산에 오를 일이 잦고 골프를 좋아하니 피약별과 바깥바람에 얼굴이 상할 일이

많아졌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나름 방법을 찾은 것이 외출 후 집에 와서 버릇처럼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서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고 서운하거나 섭섭하지는 않다. 어쩌면 늙어간다는 느낌은 아직 아니라서 일게다. 어찌 됐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는 마음이면 족하지 않을까. 자기의 나이에 맞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며 맞이하고 보내는 삶이라면 그리 섭섭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다 보면 늘 아쉽고 미련이 남아 나중에는 그 아쉬움과 미련이 후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삶과 마주하며 누리는 인생이길 바란다.

젊은이들을 보면 내 심장 박동마저 빨라진다. 그들의 환한 웃음과 열정 그리고 활기찬 발걸음에서 그대로 젊음이 느껴진다. 부럽다, 그 젊음이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말이다. 누군들 그 끊는 피의 그 시절이 없었겠는가. 모두가 지난 것들은 누구에게나 그리움이 되지 않던가.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든, 아쉬움이 있든, 섭섭함이 있든, 후회가 있든 간에 누구에게나 지난 시간은 그리움으로 남는 것이다.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잠시 시나마 그들 속에서 내 지난 젊음의 시간을 잠시 꺼내보는 것이다. 정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인생을 살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테지만, 그래도 뭔지 서운함이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이다. 젊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힘(에너지)'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에너지는 열정이고 불꽃이다.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며 다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정과 정열의 에너지가 바로 '힘'이 아니던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며 늙어가며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힘(기운)'이 빠지는 일이다. 제아무리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다. 저절로 힘(기운)이 빠지는 일에 장사가 따로 있겠는가.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누구에게나 그 젊은 시절에 남은 빛바랜 추억만이 가슴 속에 고스

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어가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시간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세월을 따라 걸어오신 연세 높은 어른들은 말씀하신다. 그것은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실 게다. 나이 들고 늙어서 힘(에너지/기운)이 없어진다면 떨어진 기력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힘'이 없어져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덕'을 세우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의 힘 자랑을 할 것도 아니니 그저 정신 놓치지 전에 덕을 세우는 일에 남은 힘을 쓰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 하나 있을까. 더욱이 '덕'을 세우는 일이야 어찌 쉬울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늙음을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덕을 쌓는 일에 마음을 두고 싶어진다. 아직 젊은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열정의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더욱 마음을 갖고 닦아 '힘'보다는 '덕'을 세우는 일에 깊어지고 싶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릴 적 국민학교에 다닐 적이다. 학년 초가 되면 '가정환경 조사서' 라는 걸 적어서 내야했다. 몇 가지 기억나는 질문항목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학력, 나이, 형제들 이름 학력, 집에 텔레비전, 피아노, 전축은 있는지. 시시콜콜 이런저런 항목들인데. 더 중요(?)한 것도 있었다. '느그 아버지는 뭐하시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는 거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했는 거다. 하지만, 난감하고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었을 터. 필요없는 항목들이 너무 많았다.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는데, 무슨 피아노? 라디오도 없는데, 무슨 텔레비전? 질문항목중 어머니를 쫓아 다니며 물어야 했던 것도 있었다. 집은 전세專賃를 사는가? 도대체 전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단다. 언제 직장을 구하기 쉬운 적이 있었던가만 말이다. 한국에서 몇몇 대기업에서 입사원서에 '가정환경 조사서' 비슷한 걸 요구 한단다. 부모의 자산을 포함해 물어 봐서는 안 되는 것들도 물어 보는거다. 반세기도 넘은 구태한 질문들이 여전하다. 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있는지, 그건 물어 보지 않는가? 직접 대 놓고

물어 보지 않아 다행이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풍문으로 들었다. 돌아간 전직대통령 아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가 최고권력자였을 적에, 정치를 배운 모양이다. 일욕심도와 했던 모양인데 감옥에도 갔었다 들었다. 그에게만은 물을 필요는 없겠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말이다. 그가 쓰는 호가 소산小山이라 커더라.
 사족蛇足이다. 내 친구가 입사원서를 쓰면서 난감해 했다. 가족 사항란을 적어야 하는데, 칸이 부족하단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차례대로 적다보니, 칸이 모자란다는 거다. 그는 팔 남매 중 여섯 번째였다. 그 친구 말이 걸작이다. '칸도 부족한데, 동생들은 빠지 뭐.' 그 친구 줄지에 막내가 되었다.
 아버지는 '능력보다 존재' 라 했다. (이영길 목사 설교 중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태 13:55)

날씨가 괴이쩍다. 추워야 하고, 눈이 와야 할 텐데 아무 기척도 없다. 겨울 척후병의 염탐도 아직은 없는듯 싶다는 거다. 눈폭탄이 쏟아져 내릴 시간이 이미 지났다. 전면포격 전야마냥 차라리 두렵기도 하다. 에라, 때가 되면 오겠지. 덕분에 한가한 날씨가 싫지않고, 오히려 고맙다. 안녕하신지.
 한국영화 '친구' 에 나오는 대사중 한 대목이다. 담임선생이 학생에게 물었다. '느그 아버지는 뭐 하시노?' 학생의 대답이다. '건달입니다.' 선생의 질문은 정당했고, 학생의 대답은 당당했다. 하지만, 대답은 선생을 화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선생은 손목시계를 풀었다. 체벌을 준비하는 거다. 무지막지한 체벌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오래전 한국 고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아버지는 뭘 하시나? 어려서 이따금 받던 질문이다. 숫기없던 어린 내가 우물쭈물 대답하

지 못했다. 어머니는 매우 못마땅해 하였고, 조기교육(?)이 시작되었다. 내 선친의 체면을 위해서 인게다. '교편教鞭을 잡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일러준 모범 대답이었다. 미당未堂의 자화상중 몇 구절이다.
 아버지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뿐이었다.
 ...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건 팔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이는 내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이는 내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누우치진 않을란다.
 ...
 (서정주, 자화상)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정관장 연말 사은 대축제



행사기간 : 12.27 까지

용삼정 최대 혜택 용삼정으로 일년동안 가장 큰 사랑을 전하세요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Free Gift

\$46 상당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홍삼정 120g 증정



Free Gift

\$100 상당



홍삼톤 / 추출액

10% OFF 또는

Free Gift



할인행사와 증정품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주문 **781-238-03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100 이하 구입시 \$5 추가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9. 레드 클라우드의 빛나는 승리 (3)

페터만 전투 (계속)
한창 인디언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캐링턴(Henry B. Carrington) 대령이 지휘하는 약 700명의 미군이 네브래스카의 커니 요새로부터 라라미 요새에 도착하였다. 군인의 가족과 건설공사업자 등 민간인 300명과 1000마리의 가축들도 함께 왔다. 그런데 코너 장군과는 달리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꼭 필요한 인디언 정탐꾼(scout)을 데려 오지 않고 길 안내자로는 짐 브리저 혼자 왔다. 인원구성이나 무기로 볼 때 캐링턴 부대는 전투용으로 편성된 부대이라기 보다는 공병부대 같은 성격이 강했다. 이 부대는 보즈만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코너 요새 외에 두 개의 요새를 더 건설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캐링턴 부대는 보즈만 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7월 13일부터 인디언의 가장 중요한 사냥터인 빅혼 산기슭에 필 커니요새(Fort Phil Kearny)를 짓기 시작하였다. 요새가 완공된 뒤에 인디언들도 이 요새를 공격하였는데 대포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요새 공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디언들은 생각했다. 따라서 적절한 술책을 써서 군인들을 요새 밖으로 나오게 해서 섬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적들에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다. 캐링턴은 8월초 150

명의 군인을 보즈만 도로를 따라 약 140km 북쪽으로 보내어 빅혼 강 연안에 스미스 요새(Fort C. F. Smith)를 건설토록 지시했다. 캐링턴 부대, 특히 필 커니요새는 처음부터 인디언들의 게릴라식 공격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인디언 연합군의 중심에는 항상 붉은 구름이 있었는데 날로 동맹이 커져 이 무렵 전사의 규모는 3000명에 달하였다. 보즈만 도로를 통행하는 마차는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였으며 요새 인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군인들도 공격을 받았다. 그해 12월 인디언 연합군은 필 커니 요새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몰살시킬 작전을 꾸렸다. 12월 21일을 승리의 디데일로 잡았다. 인디언의 전략은 적절한 유인책을 써서 군인들을 요새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일정거리 만큼 인디언들을 추격해 오도록 만든 다음 길목에 매복해 있던 전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일망타진 하는 것이었다. 붉은 구름은 덕과 지략과 용맹을 고루 갖춘 빼어난 지도자였다. 특히 그는 유인 전술을 잘 활용하였으며 인디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정을 나가 장기간에 걸친 전투를 치를 경우에는 전투 병력과는 별도로 병참병력을 전선의 후방에 배치하여 전쟁물자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전사들의 전투능력을 심부 발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필 커니 요새 주둔군 책임자로 있는 페터만(William J. Fetterman) 대위는 자기 주장이 강하여 상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혼자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장교였다. 그런 점을 잘 아는 캐링턴 대령은 페터만에게 인디언과의 교전시 인디언을 뒤쫓더라도 롯지 트레일 릿지(Lodge Trail Ridge)를 넘어가지는 말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이었다. 그러나 페터만은 기회가 오면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소령으로 진급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격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유인병(decoy)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전설적인 인디언 전사 미친 말(Crazy Horse)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페터만 부대는 인디언들의 계략에 속아서 넘어서지 말라고 지시받은 선을 훌쩍 넘어 미친 말이 중심이 된 유인병들을 쫓아 갔다가 매복해 있던 인디언들에게 꼼짝 못하게 포위되는 바람에 그날 전투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81명이 목숨을 당했다. 인디언측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약 200명의 인디언들도 죽거나 다쳤다. 페터만 대위를 포함한 미군전사자들은 리틀 빅혼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백인과의 전투에서 죽어간 수많은 인디언들은 어디쯤 묻혀 있었을까? 국가 조직을 갖춘 든든한 후견인이 없었으니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고 기념 묘지에 안장한다는 일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캐링턴이 전투 현장을 찾아와 멀쩡한 시신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난도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종교적 광신자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크게 경악하였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병사의 시신만은 온전하였다고 하는데 끝까지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며 죽어간 나팔수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약에 캐링턴이 샌드크리크에서 인디언들이 당했던 현장을 목격하였더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 인디언은 그들의 부모형제와 친척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캐링턴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시빙턴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는 광신적 믿음에서 대학살을 자행했고 인디언들은 이를 학습하여 모방했으니까 말이다. 굳이 두 케이스를 비교한다면 샌드크리크에서는 부녀자와 어린아이가 대부분인 133명이 학살당한 사건이었던 반면에 페터만 전투의 경우에는 교전 중에 81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그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1 화랑세기花郎世紀, 서문序文(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물론 소지왕(신라 제21대, 재위 479 ~ 500)의 죽음이 자연사이고 또 일각에서 보듯 왕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벽화와의 사랑에만 빠져 있다가 왕위에서 쫓겨났다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당시 신라는 왕실 내부와 주변국과의 국제정세가 복잡하였다. 사실 소지왕은 고타군古陀郡 노파의 충고를 제외하면 임금으로서 정사를 소홀히 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는 재위 22년 동안, 벽화를 만나기 이전까지, 별로 흠잡을 때 없는 정사를 펼쳤다. 재위기간 거의를 전쟁으로 보내야 했던 관계로 성의 축조와 보수 그리고 군사정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였다. 재위 초기부터 말갈족의 침입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왜의 침공이 끊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9년(487년)에는 시조왕 박혁거세가 처음태어난 곳인 나을에 신궁을 건설했다. 그리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지방(일선군)에 행차하여 빈민을 구제하였고, 또한 사형수를 제외한 대대적인 사면도 하였으며, 하는 일이 없는 백성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했는데, 이 정책이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실업자 대책이었다. 또한 월성에 시장을 개설하여 물자를 유

통시켰는데 이 역시 최초의 자유시장 개념의 경제진흥책이다.
인류의 역사는 어느 지역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평화기' 보다는 격변의 시기가 더 많았다. 소지왕이 재위했던 5세기 말 반한도의 정세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 였다. 국내적으로는 김씨 왕실의 세습을 이어가기 위한 내실을 다져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특히 정복군주 고구려 장수왕(394 ~ 491, 재위기간 412 ~ 491)의 남침을 막아야 했다. 삼국사기 소지왕편에는 고구려와 관계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소지왕 때 고구려의 집중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변화된 대고구려관계에서 초래되었다. 아마도 '업業(Karma)' 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어 소지왕의 할아버지 눌지왕이 고구려와의 관계를 배신(신라의 입장에서 독립을 한 것이다)한 것을 손자인 소지왕이 감당해야만 했다.
400년(내물왕 말, 재위 356 ~ 402)에 신라는 왜의 침입을 받았다.157) 신라는 고구려(광개토왕 재위시)에 지원병을 요청하였고 고구려는 5만의 병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구해주었다. 그 와중에 내물왕은 죽고 실성왕이 왕권을 잡았다. 그리고 왜와의 강화가 협상되면서 내물왕의 둘째 아들 복호는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갔고 셋째 아들 미사흔은 왜국에 볼모로 잡

혀갔다.(후일 박제상이 그의 천부적인 외교능력을 발휘하여 눌지왕의 두 동생들을 구해 귀국시켰다. 하지만 그는 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나는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라는 애국충정의 말을 마지막으로 화형당했다. 부인 치술은 남편 박제상이 왜국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치술령에서 망부석이 되었다. 물론 '치술령' 은 후일에 부처진 이름일 것이다. 치술공주는 실성왕의 딸이다. 화랑세기에는 치술공주에 관하여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김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중에 실성왕이 내물왕의 맏아들 눌지까지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려다가, 서라벌에 있던 고구려 군사들의 도움으로 눌지는 실성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 왕이 신라의 제19대 눌지왕(재위기간 417 ~ 458)이다. 비록 고구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영원히 고구려의 속국처럼 지내면서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서 박제상을 고구려로 보내서 볼모로 가있던 동생 복호를 구해 오게 하였고, 백제와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를 배신하였다.
고구려의 장수왕으로서는 배은망덕한 신라가 괘씸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그에 앞서 백제를 먼저 정벌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다. 그

리고 575년 백제의 한성을 총공격해서 개로왕을 죽이고 백제를 웅진(공주)으로 밀어 내렸다. 나제동맹에 의하여 신라의 군사들이 출동했었지만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 고구려의 기세가 동아시아에서 최강으로 치닫고 있을 때인 579년, 신라의 소지왕은 아버지 자비왕에 이어 즉위하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신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157)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신라에 비해 열세에 있던 백제가 신라와 경쟁관계에 있던 가야를 부추겨 가야의 영향력 아래 있던 왜의 소국들과 연합해서 대대적으로 신라를 침공케 하였다. 신라는 서라벌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고구려에 지원을 요청하여 왕성을 지키고 낙동강 하류지역을 얻고 가야를 퇴폐시켰지만, 고구려에는 왕족들을 볼모로 보내고 그 후 오래동안 속국이나 다름없이 지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은 내물왕은 죽었고, 장자인 눌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고구려에 볼모로 갔던 실성왕이 왕위를 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聖(성)

“보혜사 곧 아버지(聖父)께서 내(聖子)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聖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聖徒)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 요한복음 14:26.



2015년을 마감하는 12월이다.
 12월은 크리스마스 성탄(聖誕)이 끼어서 일까? 하나님(一)이신 예수님(二)이 성육화(成肉化)하신 달(月=肉)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법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긴급처리 해 줄 것을 목을 빼며 기다리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직권상정 할 수 없다” 고 잘라 말하고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不可) 입장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한다면) 내가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라고 말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입법부 수반 국회의장이 맞붙은 셈.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정상화 책임이 있다” 했다고 하자 “다 나라 걱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넓게 받아 들여야지” 라며 화살을 피했다.
 이어 기자들이 “직권상정을 하라는 압박이 있지 않느냐” 고 묻자 정의장은 “무슨 압박, 나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저(정의화 국회의장)하고 각을 세우는(식으로 보도하는)건 하지 말아달라” 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이 시기에 비상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며 “국민경제가 희생(廻生)하는데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회의 때마다 노동개혁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

책임을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선 100%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말만 하거나 대리인들을 앞세우는 것만으로 어렵다” 고 말한다.
 세간에서 “지금 상황이 1997년 IMF 직전과 비슷하다” 는 판단.
 당시 상황들을 지켜왔던 경제관계자들은 “그때 대통령이 좀더 적극적이었다면 IMF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는 것.
 IMF 사태 직전이던 1997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었다.
 금융노조 2000여명은 “일자리를 뺏는다” 며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대회’ 를 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紙) 등 외신은 “금융위기 탈출 가능성” 라며 상황을 지켜봤다.
 당시 IMF 구제금융 투입이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제금융개혁법 처리여부는 한국의 자구(自救)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마지막 기회.
 야당은 “13개 금융개혁법 중(논란이 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 설치법 2개를 빼고 처리하자” 며 반대.
 여당은 “2개 핵심법안이 빠지면 금융개혁의 의미가 없다” 했지만 소극적이었다.
 금융개혁법 관철을 위해 국회를 뒤흔던 강경식 전 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께 야당 당수인 ‘김대중 총재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고 건의했었지만 YS는 DJ에게 결국 “아쉬운 말하지 않았고” 금융개혁법의 재경위 통과를 무산됐던 것.
 한국정부는 3일뒤 ‘빈손’ 으로 IMF 구제금융을 공식 발표했었던 것.
 한편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 전 의장은 신문기자로 일하다 1963년 정계에 입문한 뒤 국회의원 8번 국회의장 두차례 여러정당을 대표했었던 원로 정치인.
 1932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대구 수창초등학교, 대구 대륜중학교(6년제), 서울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대학재학 시절 응원단장을 하며 얼굴에 수염을 길러 “털보 응원단장” 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1957년 동화통신(AP, AFP 통신 계약사)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주일, 주미 특파원 등을 지냈다.
 이만성 전 국회의장은 1960년 4.19 직후 총선이 새로 치러지지 않아 여전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이 부정선거관련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의사당 기자석에서 내려다보다 “이 자유당 도둑X들아” 라고 소리쳐 국회속기록에 올랐던 일화도 있었다.
 5.16 직후엔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군사 정부는 민간인에게 조속히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육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필화를 입기도 했다.
 이 전의장 유족은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 딸 승화, 승인씨 등이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은 18일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聖성: 通也통야 즉 “통할 성” 자다. 누구와 ‘통’ 하는데? 그 대상이 곧 하나님 또는 ‘나’ 를 창조하신 분과의 연결과 소통이다. 그래서일까? 聖은 세 부분으로 통합돼 있다.
 1. 耳: 主聽주청- “귀 이”
 2. 口: 人所以言食인소이언식- “입 구”
 3. 舌: 干名간명- “천간 임”
 이 세 기능의 글자가 합쳐져서 “통할 성” 자로, 분명히 말하는 입(口구)과 듣는 귀(귀이)가 있으니 대화의 상대가 누구?
 “干名간명” 이란 이름을 가진 ‘상대

가 누구? “하늘(一)에서 내려 온 십자가(十) = 干. 干=犯也범야-범할 간.
 무엇을 범(犯)했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 즉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창세기 2:16, 17.
 인간들의 실수로 “선악과” 를 따 먹고 다 죽게 된 운명을 “간섭하는 이름” 이 ‘간명(干名)’ 곧 “두번째(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十)를 지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永生)의 길” 을 트셨다고 聖子(성자)가 되신 것.
 그러므로 聖父(성부: 하나님), 聖子(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聖靈(성령님), 성삼위(聖三位) 세분만이 육체로 마감되는 “죽음(死)” 을 “聖靈(성령)” 을 타고 영생(永生)에 연결되는 것.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삼위(三位)에 “님(任: 임으로도 받음)” 을 꼭 붙이는 이유. 세분의 영(靈)이 “사람으로 성육화(成肉化)”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을 중심으로 만이 연결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월(十二月)을 聖月(성월) 또는 聖肉(성육)’ 이라 부른다.
 肉=月인 것은 “門: 遠界원계-멀 경; 태어나서 죽기까지 ‘멀리 가는 인생길 두 사람(人人);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만 한다는 그림이다.
 “2015년을 보내면서 聖月(성월) 聖肉(성육)” 하고 있나?
 聖靈성령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비결일 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대화가 가능한...



ENR 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ion 인증
 (2014년 11월 10일) 한국소비자원, “전자파 차단 매트”를 4개 업체에 대해 시험한 결과, 해당 매트 4개 중 3개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정되었다.

Made in Korea

포근한 잠자리에서 달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랫목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34년 기술력

아랫목 온수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상글사이즈



퀸사이즈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확실한 무소음 보증

- 자그드 원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01 공중기반 인증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후터수업으로 소음 걱정 특!

03 7중단면 세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마트 가열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free delivery 무료배송 (하와이, 알래스카는 \$90추가)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월 \$ 24.99

프리미엄 무제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2) 인덱스 펀드 투자

뮤추얼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선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신문에 의하면 2015년 10월 말 현재 일반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에서 \$1,350 억불(\$135 billion)을 꺼내고 채권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에서는 \$206억 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꺼낸 많은 돈을 투자자는 인덱스 주식펀드에 \$582억 불을 그리고 채권 인덱스 펀드에는 \$908억 불을 투자했다는 결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15일 자 월스트리트(Vanguard Group took in \$196 billion cash through

October, WSJ)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펀드는 뱅가드 회사의 창업자인 존 보글의 의해서 1976년 처음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미국 전체 투자자의 돈 25%가 뱅가드(Vanguard)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자산이 \$3.4 trillion으로 증가하였으며 79개의 인덱스 펀드와 몇 개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보니다.

* 저렴한 투자경비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은 1.3%이지만 뱅가드 회사의 인덱스 펀드 투자비용은 평균 0.1%이므로 차이가 나는 1.2%를 더 세이브할 수 있다고 모닝스타 회사가 언급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비용을 절약하면 그것이 수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투자 경비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나와도 경비는 꾸준히 부과됩니다. 한 푼이라도 경비가 적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습니다. 투자하는 금융업계에서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상품이 비싸면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라는 말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 투자 수익률

어떤 특정한 회사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봅시다. 올해 3월 초 한 연구기관(S&P Dow Jones Indices Scorecard)에서 뮤추얼 펀드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대기업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지 14%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가 무려 86%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기사: 86% of investment manages stunk in 2014, CNN money). 이것은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9%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

던 뮤추얼 펀드는 82%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 투자 위험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는 500대 기업에서 유망한 회사만 선정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이 뜻은 투자한 회사 수가 500보다는 적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특정한 한(1)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열(10)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분명 투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이유로 투자한 회사 수가 적은 뮤추얼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투자 위험성이 더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뱅가드 회사를 이용하여 인덱스 펀드와 ETF에 투자한 지 25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고객의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월스트리트 신문(Investors pour into Vanguard, Eschewing stock pickers, WSJ, 8/21/2014)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대 신용평가 기관, 처리방식 변경

의료비 부채 등 개선책 마련

미국 내 3대 신용평가 기관이 뉴욕 검찰과의 합의로 새로운 신용평가 지침을 따르기로 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에퀴팩스(Equifax)와 익스피어리언(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소위 빅 3 신용 평가 기관은 신용평가 및 점수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 이에 대한 분쟁을 보다 잘 조정하기 위해 신용기록 처리 방식 변경 등 새로운 신용평가 지침을 따르기로 뉴욕 검찰과 합의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용평가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관련 부채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 등에 대한 신용기록은 일정기간 신용보고서 항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따르면 소비자 부채의 52%가 미납 의료비로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보험회사의 지불지연 등에 의한 피해자가 많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은 미납 의료비 징수와 관련된 부채는 보험료 적용을 위한 180일의 대기기간이 끝날 때까지 항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 계약 혹은 합의와 관련, 아직 발생하지 않은 티켓이나 벌금 등의 채무 역시 일정기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신용기록 처리방식 변경으로 신용평가와 신용점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분도용 및 신분사기 피해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 계획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개월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들 대형 신용평가 기관들은 잘못된 개인 신용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신용 정보의 시정을 요구해도 거부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상 오류들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번 개선책 마련으로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 평가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신용이란 너무나도 중요하다. 신용이 없으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만약 집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다르다. 하지만 요즘 같이 3%에서 5% 사이에 모계지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는 특히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한다.

위의 내용은 신용을 더 발전 시키기 위한 지식이며 집을 사실 때 더 좋은 혜택으로 집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한다. 집을 싸게 사는 것 보다 좀 더 나은 이율로 모계지를 얻었을 때가 더 경제적인을 알려 드리고 싶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HMART & JEJU ISLAND PRESENTS

THE FINEST FOODS FROM THE JEJU ISLAND

A special product exhibition of all the treasures of Jeju Island! Only for a limited time.

Dec. 18 – Dec. 20, 2015 at Hmart Burlington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전

H마트와 제주도가 함께 준비한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정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초특가로 판매합니다. H마트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제주의 맛과 향을 느껴보세요.

Get **SAM DA SOO WATER FOR FREE** with Jeju product purchase. (First come, first served)
제주 특산물 구매고객에게 제주 삼다수500ml 무료증정 (선착순 한정수량)



Jej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mart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2016년도 미국 명문 대학 조기 지원 분석 시리즈 1: 하버드 대학교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하버드 대학에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기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과 동양계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조금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되었다. 물론 그 예상은 적중했다. 지원자들의 증가는 대학으로 하여금 더 많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타 대학들과 달리 하버드는 조기 지원자들 중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리쿠르트, 레가시(legacy), First Generation, 소수민족출신 지원자, 그리고 특별 재능 학생들에게 주로 입학허가를 주고 있다. 물론 이들의 성적도 최상위이다. 위의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조기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버드 조기 지원을 통한 입학허가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합격률은 높으나 실제로 일반 우수한 학생들의 조기 지원 합격은 무척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들의 입학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재정 보조 신청이 입

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버드의 경우는 충분한 재정 확보를 통해 전세계에서 많은 유능한 학생들을 리쿠르트 해오고 있다. 그만큼 학교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하버드 교육을 해외에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올해 하버드 대학교 조기전형에는 총 6,173명이 지원하여 14.8%의 학생들, 즉 918명의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올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4.3%가 증가하였고 합격률은 지난해 비해 1.7% 정도가 감소한 상태로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 중 4,673명의 학생들이 디퍼(Defer)되고 464명이 입학 거절, 12명이 원서 철회, 그리고 106명의 학생들이 미비된 원서를 제출하였다.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종적인 측면에서 볼때, 아시아 아메리칸 24.2%로 지난해 비해 1.5% 증가, 흑

인 9.4%로 지난해 비해 0.2% 감소, 라틴계 10.3%로 지난해 비해 1.1% 감소, Native American and Native Hawaiian 은 1.8% 정도가 입학 허가 되었다.

남녀 비율로 볼때 여학생이 47.4%로 지난해 비해 감소한 추세이고 남학생은 52.6%로 지난해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 허가 되었다.

전공 관련 분야를 살펴볼때, 인문학 전공자가 지난해 14.8%에서 올해 16.7%로 다소 증가했고,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11.1%로 증가했다. 반면에 사회 과학 분야 전공자들은 24.4%로 지난해 비해 4%가 감소한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볼때, 하버드는 뛰어난 학업 성적, 우수한 시험 점수, 학교내의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공헌한 학생, 그리고 흥미있는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활동과 지속성이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매년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에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학허가를 받

은 학생들은 많지 않다. 그중 대부분은 우수한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 그리고 몇개의 리더십 경험이 있다고 하버드를 지원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하버드는 모든 것이 우수해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문제가된 SAT 시험 유출을 통한 점수 향상, 주변 지인을 통한 형식적인 리서치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준비된 스펙 향상이 하버드 입학에는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학교내의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활동이 부족하고 공헌도가 미약하면 입학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학생의 순수한 자기표현, 열정, 자발적인 활동, 그리고 대학에서 무언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수 록 있는 힘과 여유(room)가 있는 학생들을 하버드가 가장 좋아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2월 셋째주)

● 신체검사

신체검사서는 영주권 신청 시 (form I-485) 요구되는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 몇가지 신체이상이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수십년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상 없이 통과됩니다. 단, 아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민국 지정의사에게서 받아야 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2002년 이전에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신체검사서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심사가 1년 이상 지체된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민국은 개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엔 그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신체검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서는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민국에 제출된 날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이전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혹시 아직도 신청서가 심사 중이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1일 이후 form I-485 를 신청하신 분들 중 1년 이상 신청서의 승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유예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니 아무런 통보없이 미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투자영주권 (Regional Center)

12월 15일 국회는 투자영주권 프로그램 중 Regional Center 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유효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1990년 시작된 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Regional Center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1992년에 생긴 이 프로그램은 태생부터 한시적인 기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Pilot Program 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이 법적유효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존

재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만료일이 올해 9월 30일이었고 한시적으로 몇 개월 더 연장된 후 이번 12월 15일 다시 내년 9월 30일까지 그 법적 유효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연장과 다르게 이번에는 연장과 함께 신청조건 등 여러가지 개정도 함께 논의가 됐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최소 투자금액의 인상이었습니다. 기존의 50만불은 80만불로 기존의 100만불이 120만불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일정과 맞물려 국회에서의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장과 개정에 관한 정치적 논쟁에 또다시 신청자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최소 투자금액 인상을 부각시켜 투자자들의 빠른 유치를 조장했습니다. 사기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 기간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좀 더 신중히 투자할 Regional Center 들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투자한 투자 이민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또한 Regional Center 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Form I-

526)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form I-485 에 대한 2016년 1월 문호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리스트 (Visa Bulletin) 를 결정하는 날까지도 국회에서 Regional Center 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법적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 2월 또는 3월에 다시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2016년 1월 중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Regional Center 가 아닌 직접투자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은 Regional Center 에 대한 법적인 유효기간만 포함됐고 투자금액이나 다른 조건들에 대한 개정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 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 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입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 ~ 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